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능주의 실용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발달로 세상이 종말로 치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전파에 힘을 쏟으며 사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0월 15일 (토) 제 160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의 “종교적 자유”, 복음으로 수호한다!

TGC, 연방 수정헌법 제1조 위축시키는 4가지 문화적 경향 소개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합헌 판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다름 아닌 “종교적 자유”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라는 가장 소중한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에서 종교는 일상생활에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은 개인과 종교 집단이 종교의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자유는 정부 지배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1조에서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워싱턴의 꽃집, 오레곤의 빵집, 뉴멕시코의 사진사 그리고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칩otle이 등이 동성애자 차별을 이유로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 자유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영리 목적의 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을 야기 시켜왔던 것이다.

경향 1: 종교는 개인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 영역이 아니다 (Religion is personal and private, not public).

많은 미국인들은 점점 더 종교 즉 신앙을 개인적이거나 사적 영역에서 단지 치유 목적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바로 나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지, 전 세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이러한 경향으로 모두 흘러간 것은 아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 대선 후보로 나설 때, 그는 그가 믿는 카톨릭 신앙이 정국을 운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1)미국인들은 종교가 바로 대중적인 영역 즉 공공 영역에서도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2)미국인들에게 그의 개인적인 신앙이 미국을 인도하는데 무해할 것이라고 연설들을 통해 확신했다. 다시 말해서, 케네디는 대권 후보로서 연설을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를 공적 영역 이상에 있는 어떠한 힘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종교를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케네디 정권 이후로, 종교는 사적 영역에만 존재하는 문제로 치부됐고, 최근 들어서는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위 “정설”이 될 정도. 종교는 공적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는 근접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공적 영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40% 정도가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애리조나 주에서는 개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성결혼 참여 및 협조를 거부할 수 있는 목적의 주 정부 차원 법을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복음연맹(the Gospel Coalition)”은 성적 혁명 또는 성적 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크리스천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4가지 문화적 경향을 고발한다(4 CULTURAL TRENDS LEADING TO THE DECLINE OF RELIGIOUS LIBERTY: Religious liberty, America’s “first freedom,” has fallen on hard times lately).



“문화”라는 옷을 입고 기독교를 위기에 몰아넣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역이나 정치 현장에서 종교는 단지 자아성취나 개인기도 영역이라는 번두리로 그 역할과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경향 2: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로만 국한된다 (Freedom of religion is narrowed to freedom of worship).

(3면으로 계속)

“위기 지도” ...생명을 구한다!

NPR, 천연재해 재난현장에서 큰 도움...탄생 배경과 사용 보도

한국에서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미국 플로리다 허리케인 ‘매튜’의 돌연변이 강타 위협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 등, 지구촌은 항상 천연 재해로부터의 위협에 전면 노출돼있다. 천연 재해라는 재난에서 만약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지도가 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할까?

NPR(National Public Radio)는 사랑하는 연인을 아이티 지진 현장에 두고, 연락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 실제 실행을 통해 만들어진 “위기 지도”의 탄생을 소개하며, 많은 재난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도한다(When Disaster Strikes, He Creates A ‘Crisis Map’ That Helps Save Lives).

2010년 터프츠 대학의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패트릭 마이어(Patrick Meier)는 TV에서 흘러나온 CNN 속보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한 경험을 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이자 동료 박사과정생이었던 크리스틴이 연구차 방문 중인 아이티에서 강진이 발생해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런 지도를 구상해왔던 마이어에게는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지도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보호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케냐와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이어는 늘 지도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3세 때 이미 “위기 지도”의 원형을 만들었다. 1991년 걸프

아이티 때 시작돼 미연방 구조팀 실제로 활용 로봇과 드론 활용한 3D 위기 지도도 개발 중

즉시 전화, 문자, 이메일, 스카이프, 소셜미디어 등 떠오르는 수단을 총동원해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는 그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지을 일생일대의 순간이었고,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 재난 지도를 만들었다. 재난 지역에서 어디가 어떤 피해를 보았고 어디에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였다.

1,500마일 떨어진 곳에 지진이 났는데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얼핏 한가

전쟁을 TV로 보면서 중동 지도에 분쟁 지역을 표시해나갔던 것이 시작이었다.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마이어는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을 실행에 옮겼다. 우선 친구들과 소셜미디어에서 최대한 정보를 모아 지도에 표시해나갔다.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위치는 어디인지, 길이 봉쇄된 곳은 어디인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지도에 붉은색 점으로 표시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결국 입 때문에” ...
‘사퇴’, ‘교체’ 직격탄 맞아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인/터/뷰
이상훈 선교사 (니카라과)

“결국 입 때문에” ... ‘사퇴’, ‘교체’ 직격탄 맞아

워싱턴포스트, 한달 남짓 남은 대선서 트럼프 음담패설 동영상 유출로 절대 위기 맞은 공화당 속내 보도

지난 주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공개한 트럼프의 음담패설 동영상이었다.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한 말이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대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거리를 두며 그의 사퇴를 압박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기는 너무 늦었다”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소개한다(There's no longer any way for Republicans to boot Donald Trump from the ballot).

10월 7일 밤 기준으로, 자신의 지지정당을 공화당이라고 밝힌 유권자 가운데 3만4천 명 이상이 이미 사전 투표로 올해 선거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박빙이 예상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8천 명, 플로리다 주의 5천 명을 포함한 수치다. 정당 정체성(party identity) 혹은 지지정당, 정당 소속감이 중요한 미국에서는 투표를 할 때 지지정당을 표시할 수 있는데,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이라고 반드시 트럼프에게 표를 주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이



는 문제를 포함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트위터에 썼지만, 공화당 대변인은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역사에서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후보를 교체한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최근의 사례는 어쩔 수 없이 허둥지둥 후보를 교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2006년 플로리다 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크 폴리(Mark Foley)는 외설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져 선거를 5주 앞두고 사퇴했다. 공화당은 떠오르는 신예 정치인이던 주 상원의원 조 네그론(Joe Negron)으로 후보를 교체하려 했지만, 규정상 투표용지에 인쇄된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시정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기는 너무 늦었다” 1996년 인기 없는 대통령 후보 때 공화당 전략; “대통령 후보와 거리 두기 통해 각자 살길 찾기”

이 이제 와서 트럼프가 싫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다. 후보 교체는 부득이한 상황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만 진행될 수 있다.

조지아대학교에 출강하는 정당 전략 전문가 조시 푸트남은 공화당의 경우 관련 규정으로 공화당 전당대회 규정 9조가 있다고 설명한다. 9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대통령 후보나 부통령 후보가 죽거나 스스로 사퇴했을 때, 혹은 그 외의 원인으로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후보를 교체하는 권한은 전당대회를 관장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있다. 전국위원회는 후보를 새로 임명하기 위해 새로운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죽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 외의 원인이라는 총 세 가지 조건에 “공화당원들이 원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푸트남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규정은 후보 자리가 공식이 됐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제공하려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외의 원인’ 부분이 애

매하니 해석하기 나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세칙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할 수도 없는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에 국한한다고 돼있습니다. 규정의 원래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내치기로 했다면, 규정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전국위원회의 법규위원회의 과반 찬성을 얻고 전체 회의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거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선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뉴욕타임스의 야미치 알신도어 기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규정을 바꾸

이었다. 결국, 공화당은 유권자들에게 폴리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당선되면 당이 책임지고 네그론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국 선거에서 폴리는 패했고, 공화당은 이번이 없는 한 지킬 수 있던 의석을 잃었다.

후보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결론이 사례별로 다르다. 2000년 선거에서 8년간 미주리 주지사로 일한 민주당의 멜 카나한(Mel Carnahan)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10월 16일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이미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상황 이었고, 투표용지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나’라는 존재 가치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어느 강사가 강의 도중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모두 손을 듭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100불을 주머니에 꽂고 구겨터니 다시 말합니다. “여기 구겨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모두 손을 듭니다. 강사가 구겨진 100불을 바닥에 던집니다. 100불짜리 지폐는 구겨지고 먼지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합니다. “구겨지고 버려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보세요.” 역시 모두 손을 듭니다. 그걸 본 강사는 “제가 여기 100불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바닥에 던져 더럽게 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는 존재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구겨지고 더러워졌더라도 ‘나’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실패할 수도, 때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평가절하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졌고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100불엔 100불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상황에 따라 내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 가치를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내적 가치”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외적 환경이 우리의 내적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없습니다. 문제는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베팅 끝에 신 느낌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믿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해가 가로 막히는 문제가 있기에 흥해가 갈라지는 즉 없던 길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고성이 버티고 있는 문제가 있기에 여기고성이 무너지는 즉 막힌 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했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무조건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해 달라고, 문제 때문에 더욱 잘 되고, 문제 때문에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만남도 갖게 해주시는 등등, 나의 문제를 재료삼아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문제들로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환란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찌됐든 관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내적 가치, 즉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오늘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앓은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두나미스의 여호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사건을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내적 가치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변치 않게 잘 지켜낸다면, 오늘 나에게도 기적과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믿는 자의 내적 가치와 정체성을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잘 지켜 나가서서, 그리스도의 향배를 풍겨내는 하나님 나라 건설 역군들이 되시기를 이 가을에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소망입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 665-0009 (대) / (323) 665-9025 (광고국) ·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 E-mail: la@chpress.net</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포) /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포) ·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미국의 “종교적 자유”, 복음으로 수호한다.

(1면에서 계속)

최근 들어, “자유와 예배”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수정헌법 1조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위”는 “예배의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예배의 자유는 바로 종교의 자유라는 광의적 영역에 속한 한 부분이다. “예배의 자유”는 또한 한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자유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 믿음이 아니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고대 로마 시대에 시저는 “예수 운동”을 하는 초기 크리스천들을 단지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 때문에, 박해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 예수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흔들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전했기에(행 17), 대대적인 박해와 고문을 실행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느브갓네살 왕이 세 명의 유태인 포로들에게 처벌을 명한 것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향 3: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말한다(Few people claim to be religious today).

최근 퓨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는 “년스”의 증가를 말해준다. 바로 종교적 교단이나 교회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숫자의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어떠한 교회나 교단과 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확신이나 동기 부여



를 이해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세속주의자보다 크리스천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유태인들이나, 수염을 깎지 않는 무슬림 죄수들을 이해하기가 쉽다. 동일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난제들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이건 유대교이건, 종교는 바로 사적, 공적 영역을 모

두 포괄한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와 세계관을 주기 때문이다. 무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 양심이 주는 민감성과 종교인들의 이러한 확신들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세속 저널리스트들은 종교인들 즉 믿는 사람들에 대해 기사나 보도를 쓴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다.

경향 4: 성적 혁명 또한 구원과

죄라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The Sexual Revolution has its own vision of sin and salvation).

마지막으로, 성적 혁명은 많은 종교적 자유 문제들을 일으키는 영역 그 자체이다. 동 문제에 대한 논란들은 성 자체를 넘어선다. 성적 혁명은 근본적인 질문들, “인간은 무엇인가?”, “성의 목적은 무엇

인가?”, 인간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 우리 신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성적 혁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제공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성적 죄악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성적 충동을 참는 것이 바로 나쁜 것(악)이고, 그러한 충동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해방시키는 것이 선이라고 부추긴다.

기독교는 인간의 번식을 통한 풍요로운 유포피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호도하는 성적 혁명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공한다. 따라서 성적 혁명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반대되고, 성적 행위는 “정상”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서 참되고 선한 행위로 둔갑되고 있다.

결론으로, 복미 기독교는 다가올 미래에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될 것이다. 종교적 자유에 대한 논란들은 이러한 경향들이 가속화될수록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쳐도 놀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성경적 입장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하자. 그 길만이 이러한 문화적 경향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편’ 은에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49편: 인생은 믿음의 예술이다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케 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아주셔서 현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영원을 향한 나그네의 인생을 누립니다.

인생은 내가 목적하는 곳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생명을 삶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웅장한 소리로 꼭 채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주하는 것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나 똑같습니다. 밤과 낮이 쉬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변화무쌍한 삶의 환경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절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술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편이 좋으면 좋은 소리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볼 때 아주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여건이 만족하게 마련되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에 속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연주장에서 어떤 음을 낼 것인가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범사에 어려운 일도 있고 절망되는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고 불안할 것도 많지만 감사할 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살전5:18).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의 길에는 범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섞이면서 사는 것이지 그림자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자만을 보고 사는 사람은 다만 자신이 불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비록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에 품어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연주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삶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엮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악보를 읽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잘 표현하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음의 생명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연주곡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라, 마음에 품으라, 그리하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향기가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일평생 자기가 할 수 있는 육신이 곡만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관악에서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입에서, 마음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귀한 연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술입니다. 불협화음만 연주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 소망, 믿음, 화평,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최상의 연주를 할 줄 아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훈련이 된 사람은 악보를 보아도 그 가슴에는 소리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자는 악보를 보아도 전혀 마음에서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악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읽고 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sangdkim@yahoo.com

“위기 지도” ...생명을 구한다.

(1면에서 계속)

며칠이 지나자, 지도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는 40개국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아이티 주민들이 현지 상황을 지도 제작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무료 문자 서비스도 설치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들을 포함한 아이티 씨의 팀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들어오는 정보들을 지도에 업데이트했다. 아이티는 몰려드는 정보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는 구조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UN에서 아이티 지진 관련 구조 업무를 담당했던 안드레이 베리티는 이 지도를 이메일로 받아 처음 본 순간,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지도에 숨어있는 정보는 금광 수준임을 알아봤다고 말한다. 아이티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한 지도를 만들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는

미 해병대와 연방 재난관리청의 구조팀이 실제로 활용하게 된다. 당시 아이티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한 해병은 후일 아이티에게 “당신의 지도가 매일매일 사람 목숨



을 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아이티의 “위기 지도”는 네 팔 지진을 비롯한 대형 재난 사태에 계속해서 투입됐다. 작년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도주의 활동을 개선하는 “디지털 인도주의”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3D 위기 지도도 개발하

는 중이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면 아이티 지진 당시에는 수집할 수 없었던 정보까지 모아 지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팔 지진 당시에도 구름 낀 날씨 때문에 깨끗한 위성사진을 얻을 수 없었던 곳에서 드론이 활약한 바 있다.

나아가 아이티는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 “위로보틱스(WeRobotics)”를 통해 네팔에서도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의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난에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다. 물론 드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나라마다 다른 항공 관련 규제 등은 차차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이처럼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농업이나 야생 동식물 보호, 방화 관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모든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이티는 요즘 집에서 정신이 없다. 당시 아이티 지진에서 살아남은 여자친구와 2013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2016

패밀리터치 & 한국 지구촌 교회, 목회 리더십 연구소 공동주관

강사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목회 리더십 연구소 대표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사랑의 순례

날짜: 2016년 12월 5일 (월) – 6일 (화) (1박2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Fort Lee, NJ 07024

등록비: \$200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목회자 전액지원)

대상: 현직 목회자 **부부** 선착순 30 커플, 타주 목회자 우선

참가 문의: 패밀리 터치 201-242-4422

www.familytouchusa.org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나의 '유추프라카치아' 꽃은?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추프라카치아'는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 공기 중에 있는 소량의 물과 햇빛으로만 사는 음식물입니다. 이 꽃은 결벽증이 강해 지나가는 생물체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시름시름

않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이 꽃이 한 번 만지면 죽지만 같은 사람이 꾸준히 만져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특성이 '결벽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터

치가 필요한 '애정결핍증'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3중장애인 헬렌 켈러는 '유추프라카치아' 꽃 같은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그녀에게 앤 셸레반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꾸준히 다가가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셸레반 선생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은 헬렌 켈러의 마음 문을 열었고 그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후에 헬렌 켈러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장애인인이 되었고 세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도 '유추프라카치아' 같은 사람이 있나요? 내 주변에 내가 계속 다가가서 사랑과 관심으로 터치해야 할 '유추프라카치아' 꽃은 누구인가요? '내

인생이야. 나 내버려 둬. 나 건드리지 마. 관심 꺼'라고 외치는 '유추프라카치아', 오늘도 혼자 외롭게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사는 '유추프라카치아' 꽃 같은 사람의 접근을 기피하는 결벽증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애정결핍증'에 걸린 '유추프라카치아' 꽃은 누구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때는 '유추프라카치아' 꽃이 아니었나요? 우리도 한때는 걸음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참사랑에 굶주린 인생이지 않았나요? 내가 '유추프라카치아' 꽃이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지속적인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신은 용처럼 절대 태어나면 안 될 팔자라며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며 사는 '유추프라카치아' 꽃들이 있습니다. 또 한 엘리야처럼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굴속에서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탄식하는 '유추프라카치아' 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사랑의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이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로움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은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보살핌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사랑을 살립니다. 혼자 외롭게 '숨어 지내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을 빛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새생명축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초대해야 할 '유추프라카치아'는 누군가요?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는 내 주위의 '유추프라카치아'에게 다가가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 '유추프라카치아'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푸 / 른 / 초 / 장

이만호 목사
(뉴욕음안대목교회)



하루, 한달, 한해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순간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결국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이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이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한번의 그릇된 잘못된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그리스도를 영생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에 이와 같은 큰 피해를 입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형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할 때 10명은 잘못된 선택의 보고를 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므로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스웨의 길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다시스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에 이와 같은 큰 피해를 입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형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할 때 10명은 잘못된 선택의 보고를 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므로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스웨의 길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다시스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어있어서 아주 무슨 선택과 결단을 할 때는 최선의 것, 그리고 결단을 할 때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결단을 하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늘 머뭇거리고, 무엇하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절대로 그 인생에 성공이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은1:6). 선장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도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14, 15절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우리는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진지라" 바다에 풍덩 던져졌는데, 그 밑에

3. 하나님은 순종할 때 성취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은지라"(은3:4-5).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금식을 다 했어요(은3:7-8). 니

을 던지고 그렸는데 친구의 등쌀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났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설교 예화집을 읽던 가운데 부와 명예를 좇는 대신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겠다는 한 의사의 섬김을 보면서 "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시골 소년에게 꿈도 꾸어보지 않았던 의대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학에서 의대생들과 함께 시작한 기도와 말씀 공부로 현재 1천5백 명이 모이는 아가페의료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진료, 농어촌 의료진료. 세계를 향한 의료선교를 위해 일평생 모든 물질과 휴가를 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청진기와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을 들고 그 길을 갑니다.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의 증언이 한결같이 일치합니다. "그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 번 믿어보고 싶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죄'일뿐입니다. 회개했다면 즉시 돌아키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의 인생 7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그 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니스웨로 가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는 다시스로 가지 말게 하옵시고 니스웨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군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니스웨냐! 다시스냐! (요나 1:1-7)

1. 니스웨냐! 다시스냐!
요나는 잘못된 선택인 다시스로 결정하여 심한 풍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스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은1:1, 2)고 하셨습니다. 이 니스웨는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를 갖고 있는 이방 나라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니스웨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니스웨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내용을 바꾸고 할 자격도 없고 또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적대적인 나라인데 죄가 많아서 차라리 망하는 게 좋지. 가서 살려놓으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기로 결정할 그 당시에 가족이 너무 많아져 하인들끼리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하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나는 동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가만 보니까 소들과 고모라 쪽이 풀이 많고 풀도 많고 '야, 저기 가면 가족들이 잘 먹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구나'하고 그쪽을 선택하고 내려갔습니다. 소들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에 몰리지 않는다고 해도,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들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와 두 딸과 아내만을 데리고 탈출해 오는데, 그 아내는 끝까지 거기에 둔 재산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들어서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2.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돌이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풍랑을 보내셨습니다(은1:4-5).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들어있어 우리 주님을 떠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단력이 사라지고, 내태하고 해이해집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물고기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덮석 그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삼 일 동안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요나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거역하고 탄 길로 갔다가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회개 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2장에 가보면, 1절로 3절에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7절 이하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림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

니스웨 사상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런 기록은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은3:10).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보는 일도 생겨날 수 있고 또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마7:13-14).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며 가는 큰길로 가지 마시고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지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의료선교 개척자로 불리시는 박애병원 원장 이근오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의 예제자로서 "이광림"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도전받는 내용이 나오십니다. 유교 집안의 장남으로 고교 시절 동네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들

는 주도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용지를 교체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신 추대된 새로운 공화당 후보 X를 대통령으로 뽑고자 투표용지 상에서는 트럼프에게 표를 달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호소에 따라 트럼프를 찍었다. 더 극단적으로 차체에 공화당이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위헌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나리오이다. 이상 검토한 대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대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가능성이 무척 높다. 1996년 공화당이 인기 없는 대통령 후보를 맞아 선택한 전략은 "대통령 후보와 거리 두기를 통해 각자 살길 찾자"였다. 즉,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막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했던 밤 후보와의 연대 친분을 과시해봤자 지역구 선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공화당 후보들은 밤 후보를 투명한 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의제를 내세우고 지역구 이슈에 집중했다. 트럼프를 언급하는 게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조조한전 공화당 후보들의 대응책도 1996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면에서 계속)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카나한 후보가 당선되면 고인의 부인 진 카나한을 상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카나한 후보는 승리했다. 2년 뒤 이번에는 민주당의 미네소타 주의 연방 상원의원 폴 웰스턴(Paul Wellstone)이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카나한의 경우보다 선거일까지 기간이 더 짧았다. 미네소타 주 선관위는 상황을 참작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대신 이미 부재자 투표 등에서 웰스턴 후보가 받은 표는 새 후보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상원의원직에 도전한 건 부통령까지 지냈던 월터 몬데일(Walter Mondale)이었는데, 결국 선거에서 민주당은 패했고, 지킬 수 있으리라

여겼던 상원 한 석을 잃었다. 2002년에는 뉴저지 주에서도 상원 후보가 막판에 교체됐다. 주인공은 민주당의 뉴저지 주 상원의원 로버트 토리첼리(Robert Torricelli)인데, 잇따른 스캔들이 터지며 패배가 확실해 보이던 시점에 토리첼리는 스스로 사퇴한다. 상원의원 경력에 있던 프랭크 로텐버그(Frank Lautenberg)가 대신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겠다고 후보를 자처했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로텐버그의 손을 들어줬고, 선거를 34일 남겨둔 시점에서 투표용지에 있는 토리첼리의 이름을 로텐버그로 바꿔 다시 인쇄하라고 지시했다. 후보를 교체할 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시점에 따라 이미 투표가 시작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사례에도 그랬던 것

처럼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바꾸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말이다. 주별 선관위 규정에는 투표용지를 수정하거나 후보를 바꿔 새로 인쇄할 수 있는 기한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규정이다. 플로리다,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크호, 텍사스, 버지니아 등 이미 많은 주에서 해당 기한이 지났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내치기로 하고 성공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3만4천 표는 버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점전이라도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열세에 놓여 있었다. 지금 시점에서 후보 교체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몇만 표를 버리면서까지 성공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대단한 모험인 셈이다.

규정상 유권자의 표를 직접 더해 대통령을 뽑지 않고 선거인단이 주별 선거 결과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미국의 선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를 추대한 뒤 트럼프를 찍은 표를 새 후보에게 던져달라고 선거인단 538명을 설득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마찬가지로 법정 공방 끝에 공화당이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큰 시나리오이다. 많은 주의 선거인단은 자신이 대표하는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해야만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있다. 선거 결과와 다른 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하는 건 법을 어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출신 주의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투표하는 것이 관례로만 남아있고 엄격한 법 규정은 없

는 주도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용지를 교체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신 추대된 새로운 공화당 후보 X를 대통령으로 뽑고자 투표용지 상에서는 트럼프에게 표를 달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호소에 따라 트럼프를 찍었다. 더 극단적으로 차체에 공화당이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위헌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나리오이다. 이상 검토한 대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대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가능성이 무척 높다. 1996년 공화당이 인기 없는 대통령 후보를 맞아 선택한 전략은 "대통령 후보와 거리 두기를 통해 각자 살길 찾자"였다. 즉,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막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했던 밤 후보와의 연대 친분을 과시해봤자 지역구 선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공화당 후보들은 밤 후보를 투명한 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의제를 내세우고 지역구 이슈에 집중했다. 트럼프를 언급하는 게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조조한전 공화당 후보들의 대응책도 1996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sfgc@hot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NO on PROP 64-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 절대 반대(2)

지난주에 이어 Prop. 64라는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Prop. 64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하고자 제출된 발의안입니다. 만일 이번 11월 8일 대선 때, 행여라도 Prop. 64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전역에는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는 과자, 사탕 등 스낵의 모습으로도 팔리게 될 것입니다.

단체, 버클리클럽, 그 외 민주당 소속의 판사들과 기업인들, 소수의 경찰팀과 개인 경찰들입니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은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Sean Parker

그 외 오락용 마리화나를 적극 반대하는 단체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를 대표하는 수많은 보안관 단체들과 경찰소속 단체들, 그리고 디스트릭트 변호사,

1. 교통사고 증가-The AAA Foundation for Highway Safety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워싱턴주 같은 곳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2. 조직범죄 증가-마리화나 1온스(약28그램)는 250달러 이상인데, 경찰 연합단체들에 의하면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로, 비싸도 마리화나에 이미 중독이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싼 마리화나를 사기위해서 조직적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 Prop. 64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Prop. 64 발의안에



마리화나가 섞인 소다와 커피까지도 판매

Prop. 64 발의안을 제출한 정당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1세 이상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할 수 있게 한다.
2.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15%로 올려서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창출할 수 있다.
3. 그동안 마약으로 인해 소모돼야 했던 법적 집행 비용들을 감소

아이들이 먹는 쿠키, 스낵, 소다, 커피 등에도 마리화나 들어가 교통사고, 조직범죄 증가...징수된 세금은 마약 관련에만 사용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마약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고, 마약과 알코올중독 처방이라든지, 마약후 운전 및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동안 그런 교육과 법적 집행비용 사용됐던 모든 비용들을 다른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리화나가 섞인 쿠키와 스낵들 판매

명시된 것은 “오락용 마약을 판단으로 거두어진 세금은 마리화나의 연구 및 마리화나 용도사용 등의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고 일반 재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안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락용 마약을 판 세금이 시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나 도로 또는 복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4. 블랙마켓이나 뒷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자기 집 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고, 기업화시킬 수 있고, 학교나 파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Prop. 64를 찬성하는 정치정당과 단체들은?

이번에도 민주당입니다. 마리화나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친동성애 법안들과 반기독교 법안들을 제출한 정치인들이며, 그 외에 동성애와 이슬람인권 지지에 가장 앞서고 있는 ACLU, 최초 정치동성애자인 ‘할비밀크 민주당 클럽’, 산타모니카 민주당클럽, 라티노 민주당클럽, LGBT인권 민주당 단체, 진보주의 민주당 단체,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카운티 센터럴

로서 지금까지 6.23달러인 달러를 도네이션하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모은 후원금이 자그마치 18달러인 달러가 넘습니다.

Prop. 64를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오락용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3명씩이나 나서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판사들이며 특별히 여러 병원들을 도네이션하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모은 후원금이 자그마치 18달러인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직접 보안관으로 경찰관으로, 그리고 병원이나 아이들 범죄상담소에서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Prop. 64-오락용 마리화나 반대 의견”을 번역한 것을 지난번에 이어서 몇 개 더 나누겠습니다(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통과된 주들을 관찰한 내용들).

결론: Prop. 64에 꼭 반대(NO) 투표해주세요!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나면 그 결과로 시민들은 약물 재활 뿐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문제들과 사회문제, 범죄로 인해 더 많은 주정부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Prop. 64를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미대선 가이드라인과 주류언론이 이야기 하지 않는 기도해야할 뉴스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다가 ‘기쁨’이란 단어를 여러 번 발견했고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쁨이나 웃음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의 위력과 지도자로서 웃음이 왜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에서 김

A: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늘 기쁨과 관용 등 낙천적인 삶을 살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이요 건강의 비결입니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는 늘 밝고 유머러스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성도들이 볼 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의 처칠은 제2차 대전 중에서 영국이 대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장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좀 웃으시오, 그리고 부하들에게 웃음을 가르치시오. 웃을 줄 모르거든 최소한 빙글거리기라도 하시오.” 위기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웃음과 희망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처칠의 리더십은 장병들에게 힘을 얻게 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활책보다 따뜻한 웃음과 사랑의 격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낙천적인 삶과 유모어를 잘 사용한 사람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

웃음은 NK세포 강화시켜 암도 치료

습니다. 1984년 2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레이건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었다”라는 민주당의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과제였습니다. 젊은 민주당 후보 먼데일은 레이건의 고품을 문제 삼으며 TV 토론에 나섰을 때, 레이건은 여유 있는 모습과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젊은 먼데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먼데일이 레이건의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젊고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레이건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대화를 역으로 활용하여 당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이므로 늘 기뻐하고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므로 장로님도 자주 웃음 짓고 웃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신현국 목사가 쓴 ‘웃음치료’라는 책을 보면 텍사스대학의 Dr. Shant는 NK(Natural Killer) 세포 연구를 통해 생존율의 수치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는 암치료의 강점은 NK세포를 강화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정신면역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일본의 스쿠바 대학 무라가이 가즈오 교수는 “마음은 유전자도 바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웃음을 통하여 23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온(ON)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실제로 활동하는 유전자는 3%에 불과하고 97%는 휴면상태인데 웃음, 긍정적 마음, 감사와 희망적 기대는 유전자 활동을 활성화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라사키 시의 의사 이타미는 NK와 웃음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험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5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일 인체 내에 생기는 암세포의 수는 3000-5000이 되는데 NK의 공격이 없다면 살아남을 인생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웃음은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낙천적인 믿음과 웃음을 가지고 오래 하나님 일하고 건강하십시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의 하우스(HAUSA)



8개 국가에 거주하는 9개 하우스 종족의 통합 파일. 2300만이나 되는 하우스족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족 집단이다. 이들의 문화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역사는 이민과 정복으로 점철되었다. 19세기 초 이후로 풀라니족(Fulani) 침략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세기 동안 원거리 무역에 주로 종사해온 데다가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동화력이 있어서 하우스의 문화적 경계는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하우스의 언어는 빠른 속도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가

되고 있다. 사하라 주변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우스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 토루베족(Torobe)과 펠라타족(Fellata)을 비롯한 풀라니족을 일부는 하우스어뿐만 아니라 하우스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였다. 2천만 이상의 하우스족은 나이지리아의 북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을 "하우스의 땅(Hausaland)"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동부의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많은 하우스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의 주요 도시에서 잘 정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향력 있는 강한 크리스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삶의 모습 하우스족은 주로 농부나 양치기

로, 또는 무역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재배하는 작물로는 수수, 옥수수, 쌀, 양, 땅콩, 담배 같은 것들이 있다. 농부나 양치기라 하더라도 2/3 정도는 농업이 아닌 일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다.

하우스 무역상들의 특징적인 외모는 길게 늘어뜨린 가운과 수를 놓은 모자를 쓴다. 그들은 많은 시간들을 지방 시장에서 가족제품과 철제 자물쇠, 마구 같은 물건들을 팔러 다닌다. 시장은 하우스 사회의 전통적인 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들과 친척들이 그 곳에서 만나서 마을일을 의논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처녀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 곳으로 간다.

대부분의 하우스인들은 시골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의 농촌에는 2,000에서 1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 촌락의 내외에서, 인구의 1/3에서 1/2 정도는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농촌부락을 이루며 산다. 이러한 혈연을 바탕으로 경제단위는 가부장의 권위와 지도 아래 유지되는 것이다.

하우스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소유재산에

따라 평민 또는 수장(chief)으로 분류된다. 혼인관계에서는 가까운 친척, 특히 사촌 등이 배우자로 선택된다. 그것은 부계사회로서 남성의 혈연을 따라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유한 하우스인들의 옷장에는 전통의상에 따라 수를 놓은 가운과 샌들, 가죽 슬리퍼 등이 있다.

하우스의 여자는 대개 12-14세에 결혼을 한다. 이혼률이 높긴 하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래도록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일은 별로 없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일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우스의 여자들은 남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다. 사실 그들은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축제 또는 일터에 갈 때 빼고는 외출에 제한받는 일이 흔하다.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고, 잡다한 가사를 하는 등의 일을 주로 맡고 있다. 또 물을 길고, 요리에도 필요한 연료를 구해오는 일도 한다. 밭일도 하고, 남자들이 수확하는 일도 돕는다. 그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마저 시장 일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벌어들인 돈은 딸의 지참금을 저축하는데 쓰인다.

하우스족은 매우 근면한 민족이며, 나태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들은 몇 가지 다른 직업들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군대에 있으면서 무역과 상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며, 이슬람 전파에도 힘을 쏟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상업 영역을 독식하게 됐다.

신앙 서기 1500년경에 이슬람교가 북부 무역상들에 의해 하우스족에게로 들어왔다. 도시에 사는 하우스족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시 받아들였다.

1804년과 1808년에 "성전(holy wars)"이 일어나면서 하우스족은 주변의 강대한 이슬람 종족인 풀라니족에 정복됐다. 그때, 많은 시골사람들도 강제로 또는 돈을 받은 대가로 무슬림이 됐다.

오늘날 하우스족은 완전히 무슬림 민족이다. 그들은 주변민족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도 크

게 기여하고 있다. 대단히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의 의식들과 축제 모두를 준수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우스의 문화는 이슬람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부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하우스인들을 강렬히 박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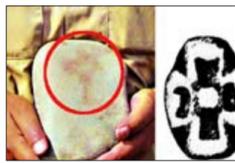
대부분의 하우스 사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있다. 그럼에도 예수께 마음을 연 사람은 거의 없다. 이슬람이 하우스의 무역상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우스인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계속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하우스족에게는 현존하는 기독교 자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카자흐서 1100년대 기독교 십자가 발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고대동방기독교의 한 형태인 네스토리우스파 십자가 문양이 발견됐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경교(景敎)라 불리는 동방교회의 네스토리우스파 신앙이 전해진 경로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고고학적 유물을 찾지 못했다.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원류'를 찾는 패기로 전해지고 있다.



크리스챤리티튜데이 인터넷판은 3일 "십자가 문양은 카자흐스탄 동부의 중국 국경지대인 일리안 발리에서 발견된 묘비석에 새겨진 것으로, 동방교회의 분파였던 네스토리우스파 십자가"라고 보도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5-14세기 왕성한 선교활동을 펼쳤다. 시리아 에데사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신라의 경교) 일본까지 '동진(東進)'을 거듭했다.

발굴작업은 2년 전 건축 자재를 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한 현지인이 땅에서 나온 돌에 십자가 표시가 새겨져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본격화했다. 현지 실크로드 전문가인 칼 바이파코프를 비롯해 미국 남침례신학교 탠디고고학연구소팀 등이 협력했으며 울여름,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묘비석 7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묘비석은 당시 주 거주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집단으로 발견됐는데 대략 1162년 쯤 제작됐을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했다. 학자들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고고학 발굴팀 멤버인 토머스 데이비스(남침례신학교) 교수는 "십자가 문양 발견으로 카자흐스탄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로였던 실크로드의 다문화센터 역할을 했으며, 목동과 유목민 부족들 사이에 살았던 기독교인과 무슬림, 불교도들이 서로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이슬람교(70%)와 러시아정교회(26%)가 주류 종교이며 개신교는 소수(4%)에 불과하다. 기독교인들은 이번 발견으로 자신들의 고유민족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고 크리스챤리티튜데이는 전했다.

한 목회자는 "십자가 문양은 이슬람 도래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번 발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확산시킬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통령 후보 TV토론회서 격돌...펜스, 보스보다 잘해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의 TV토론회는 '클린턴-트럼프의 대리전'이었다. 양당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고 해명하는 데 열을 올렸다.



4일 버지니아 웨스턴대학교에서 '대통령의 자질과 리더십'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된 부통령 후보 TV토론회는 곧바로 대리전의 불을 뿜었다.

답변 기회를 먼저 얻은 케인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평생 자신의 이수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항상 자신만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표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클린턴이 대통령과 군통수권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믿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 죽을 지

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펜스는 "미국인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한 뒤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은 대통령 자질이 없음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케인은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모금을 하다 틀음이 난 트럼프 재단의 위법성이 더 큰 문제라고 맞섰다.

트럼프의 세금문제도 논쟁이 됐다. 사회자인 CBS 여성앵커 일레인 쿠퍼노가 "트럼프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공정한가"라고 묻자 펜스는 "트럼프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며 "그는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했고 금융내역서를 공개했다"고 옹호했다. 이에 케인은 "세금내역서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비꼬았다.

펜스는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을 조사한 뒤 불기소를 권고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공화당 원이라는 사실을 케인이 상기시키자 "당신 아들과 내 아들이 클린턴 방식으로 기밀을 다뤘다면 군사법원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케인은 트럼프의 멕시코계 연방관사를 향한 인종차별 발언과 미스 유니버스 비하 등 막말 사례를 나열하자 펜스는 트럼프 지지자 절반을 '개탄스러운 무리'라고 비하한 클린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TV토론 직후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펜스를 승자로 뽑았다. 케인을 승자로 뽑은 반응은 42%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답변한 펜스가 돋보였다고 보도했다. 반면 케인은 지나치게 말이 많고 빠른 데다 여러 차례 펜스의 발언 중 끼어들다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받는 등 토론에서 밀렸다고 WP는 평가했다.

미국인 70% "주한미군 주둔 찬성"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조사와 비교해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이다.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6일 발표한 외교 정책 관련 미국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했다. 이는 2014년 64%보다 6%포인트 높은 것이고, 2012년 60%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더 높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미 전역의 미국인 2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 비율은 보수적인 공화당(76%) 지지자 뿐 아니라 민주당(70%) 지지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았다. 또 최근 공화당 대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이 적절한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정작 그의 지지자들 가운데 72%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했다.

미국인들은 자국을 위협하는 13개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위협으로 국제 테러리즘(75%,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비무호국의 핵 보유 가능성(61%), 북한 핵 프로그램(60%) 등의 순이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위협이라고 꼽은 비율(60%)은 2년 전(55%)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55점이었다. 이는 1978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9점으로 12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맥아더재단, 미국 레스터 크라운 및 크라운가(家)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북한주민 "배급제 붕괴되고 경제활동 통제 심하다" 유명무실한 배급제와 경제활동 규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자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미국인 10명 중 7명 주한미군 주둔 찬성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조사와 비교해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이다.



미국인들은 자국을 위협하는 13개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위협으로 국제 테러리즘(75%,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비무호국의 핵 보유 가능성(61%), 북한 핵 프로그램(60%) 등의 순이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위협이라고 꼽은 비율(60%)은 2년 전(55%)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55점이었다. 이는 1978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9점으로 12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맥아더재단, 미국 레스터 크라운 및 크라운가(家)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북한주민 "배급제 붕괴되고 경제활동 통제 심하다" 유명무실한 배급제와 경제활동 규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자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실태를 담은 첫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서민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은 더 이상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고, 경제활동마저 통제되면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각지에 거주하는 의사, 이발사, 요리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28-80세 남녀 36명이 설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양질의 삶에 필요한 배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전원이 "아니다"고 답해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에는 충분한 배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배급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까지 제한되면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조치에 가장 큰 반감을 느꼈느냐'는 물음에 "장사 밀전을 빼앗겼을 때" "암시장에서 물건을 판 죄로 수감됐을 때" 등 자구책 통제에 대한 응답이 잇따랐다. 저임금, 강제동원, 준조세도 불만의 원인으로 꼽혔다.

CSIS는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에 반감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일반 서민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태를 담은 첫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서민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은 더 이상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고, 경제활동마저 통제되면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각지에 거주하는 의사, 이발사, 요리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28-80세 남녀 36명이 설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양질의 삶에 필요한 배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전원이 "아니다"고 답해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에는 충분한 배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배급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까지 제한되면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조치에 가장 큰 반감을 느꼈느냐'는 물음에 "장사 밀전을 빼앗겼을 때" "암시장에서 물건을 판 죄로 수감됐을 때" 등 자구책 통제에 대한 응답이 잇따랐다. 저임금, 강제동원, 준조세도 불만의 원인으로 꼽혔다.

CSIS는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에 반감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일반 서민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 정부, 성전환 희망군인 수술까지 해줘



미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성전환치료 비용이 지급돼 비난이 일고 있다. 페이스 북 기독교매체 TVNext는 지난 4일 정부가 국방보다 성전환자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USA투데이에 보도를 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10월 첫 주부터 군인의 성전환 치료 및 수술비용을 지급한다. 비용은 매년 240만에서 480만달러의 예산에서 지원된다. 현재 130만 명의 군인 중에서 1,320-6,630명 정도가 성전환자다. 이 성전환자 군인 중에서 30-140명이 호르몬 치료를 원하고 25-130명이 수술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이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치료를 못 받아 군인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별 재지정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다.

종교적 자유 단체 Alliance for Religious Liberty 대표이며 공복인 론 크루 목사는 "이 결정은 정부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들을 돕고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군대 의료 자금을 성전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전환 호르몬 치료는 21일의 치료기간과 90일의 병가를 준다. 성전환 수술은 135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6-20%는 합병증으로 더는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어 크루 목사는 "현재 군대에서는 군인이 전쟁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성전환자 교육을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운동가인 아론 벨킨은 "군인들의 성전환 치료에 군대 의료 자금을 사용하므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포함한 더 심각한 문제를 막게 돼 군대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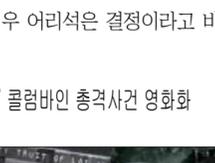
최근에 국가 보안 비밀을 누설해 35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군인 첼시 매닝이 성전환하기 원한다고 해 감옥에 있는 이 군인까지도 군대 의료 자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했다.

TVNext는 미국의 국가 빚이 19.5조달러를 넘었고 군대는 계속 축소되고 국방 예산도 15%가 준 상태에서 성전환성 혼동 군인 치료로 매년 840만달러의 예

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콜럼비아 충격사건 영화화

미국 콜럼비아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I'm Not Ashamed(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브 fingerofthomas란 채널에 2분9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I'm Not Ashamed)-콜럼비아 충격사건에서 일어난 실화'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영상의 내용은 정리해 보면 이렇다.

1999년 4월 20일 미국은 콜로라도주의 콜럼비아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건으로 충격에 빠진다. 이 사건으로 자살한 가해자 두 명을 포함, 총 15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첫번째 피해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인 레이첼의 스카이다. 가해자들은 그녀의 다리, 팔 등에 여러 발의 총을 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다는건 내가 더 잘 알잖아(You know I do)"라고 대답했고, 그들은 "그래, 그럼 니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레이첼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고 17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영화는 레이첼의 믿음과 고민이 진솔하게 담긴 일기장, 그녀의 가족, 사건 당시의 목격자,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됐다. 이 영화의 홍보영상은 11개월 동안이나 아무 이유없이 유튜브로부터 차단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이 일자 홍보 영상의 게재를 승인했다.

수많은 방해물 이겨내고 이 영화는 오는 21일 드디어 미국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잊혀진 전쟁' 예멘 내전...아동 37만명 아사 위기



예멘 내전이 1년6개월째 이어지면서 어린이 37만명이 극심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UNICEF)을 인용해 예멘 국민 약 3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 150만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37만명은 면역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기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사무국장은 예멘의 항구도시 호데이다의 한 병원을 방문해 "영양실조로 비쩍 마른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 한쪽의 대기실에는 부모들이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며 슬퍼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납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톨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2. 송헌주

송헌주(宋憲樹)(1880-1965)는 고종 17년 1880년 10월 22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공덕리 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송헌길(宋憲吉), 송헌주(宋憲柱), 송헌수(宋憲樹) 그리고 송헌위(宋憲尉)로도 불렸다. 그는 1890년대 구한말 관직에 관심이 있던 청년들이 진학하던 한성관립영어학교를 다니다가 농상공부 주사로 하루 재직했다.

하와이

송헌주(H. F. Song)는 하와이 노동이민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계 이민회사 동서개발공사의 통역원으로 고용되어 1903년 12월 5일 도릭호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25세의 그는 안동 권



송헌주

씨와 결혼하고 딸 송순이를 둔 아버지였다. 1905년 5월 다른 한인들과 함께 남학생 기숙학교 설립 제안을 하였고, 그 해 7월 박윤섭과 함께 교육회 결성을 주도하고, 그 해 8월 한인동포간의 상호 상조를 목적으로 한인상조회가 결성될 때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 해 10월 외부 협판 윤치호가 귀국할 때 귀국선까지 환송했다.

1905년 12월에 개최한 미국 북감리교 제1회 하와이 연회는 지도

력 있는 그를 포와한인교회 Korean Christian Advocate의 발행인으로 파송함으로써 그는 기독교 교역자로서의 발을 성큼 내디딘다. 이 무렵 송헌주는 호놀룰루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밀사

1906년 4월 송헌주는 호놀룰루에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동부 뉴욕을 거쳐 1907년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의 로녹 대학 경영과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헤이그 밀사였던 이상설을 만나고, 박용만의 추천이 있어 고종이 1907년 6

월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파송된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밀사의 통역으로 윤병구와 함께 참여하면서 그는 5개월간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다. 이로써 그는 조선 독립 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프린스턴 대학

1910년 송헌주는 중단했던 로녹 대학에 복학하여 1914년에 본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식 때 그는 "한국과 기독교"라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장은 한국 민족의 빠른 복음화에 대한 밝은 약속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극동 기독교화의 확실하고 유리한 근거를 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졸업할 때의 그의 영어 이름은 Hum Joo Song이었다. 로녹

대학을 졸업한 1914년에 송헌주는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역사와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듬해 6월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의 교인 재적수는 149명이었는데 반해 그의 목회 1년차인 1917년 3월 현재의 교인 재적수는 11명이 증가한 160명이었고, 주일학교 교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한인여학원, 1906

그 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한다.

하와이 제일한인감리교회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송헌주가 1916년 2월 하와이 호놀룰루제일한인감리교회 제 4대 목

사도 14명에서 7명이 증가한 21명이나 되었다. 이만하며 '호놀룰루한인감리교회'를 '제일한인감리교회'로 공식화할 만하다.

그런데 1917년 3월 하와이 연회 감리사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보고한 대로 전년도와는 달리 영적

의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심각한 분쟁의 여파가 교회에까지 미치면서 교회 분열을 초래한다. 1918년 3월 현재 세례인 수가 31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 수치에서 그 징후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송헌주는 1918년에 사임한다. 그 해 3월 방화중 목사가 송헌주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하였고, 사임 4개월 후인 1918년 7월 29일 이승만의 '신립교회'가 창립함으로 제일한인감리교회는 분열하였다.

한인여학원과 미국 정부 특수업무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는 1918년 3월 제일한인감리교회를 사임한 송헌주를 한인 여학원(Korean Girls' Seminary)의 교사로 파송하였다. 본 한인여학원의 제 1회 졸업식에서 그는 축도 순서를 맡았다. 그런데 1918년 캘리포니아 연회에서 송헌주는 목사가 되는 4년차 과정을 밟고 있었다. 하와이 연회는 1919년에 그를 미국 정부의 특수업무(Special Service)로 파송하였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다. 그는 1943년 미국 북감리교 가주연회 목사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아 교역자로서 교적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위원이 되어 임시정부의 재정을 후원하였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그는 1922년 북미대한민국 민회를 발족시켰고, 193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로스앤젤레스 재무부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39년에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이 되었고, 1941년 8월에는 재미한족연합회 집행부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임시정부를 후원함으로써 독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1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확보한 가운데 송헌주는 1942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한인국방경위대 외교과 정위로 임명받아 대일 항



묘비

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해 미국 전략청의 권유에 비망록인 "한국과 태평양전쟁"을 펴낸 그는 1943년에는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 1944년에는 북미대한민국민회 총회장, 1945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연합국 회의에 파송된 임시정부 대표 등을 두루 거치면서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건국훈장

송헌주는 광복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다. 1965년 7월 31일에 향년 8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62년간 거주했던 타향을 떠나 영원한 분향으로 돌아갔다. 나성한인장로교회 권희상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마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엔젤루스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그의 육신이 안장됐다. 그의 묘비 중앙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어 그의 애국심을 대변한다. 1917년 한인여학원에서 재혼한 송헌주의 부인 사순남(Mary Soonami Sah)은 1974년에 8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송헌주와 나란히 누워있다.

1995년 한국 정부는 송헌주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송헌주의 후손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첫 보훈보상금 전액인 1만5천6백 달러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에 기부하였는데 본 기념재단은 재단 산하에 송헌주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damien.sohn@gmail.com

헤이그 밀사 통역관으로 활동, 독립운동 적극 참여, 광복후 귀국 안해 하와이제일한인감리교회 시무, 한인여학원 교사, 미정부 특수업무 파송



미국북감리교 가주연회(1943)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송헌주



국제연합창립총회 대표단 앞줄 왼쪽에서 첫 번째가 송헌주

사가 된다. 흥치범 목사가 학업 차 회회를 떠난 지 9개월 만에 부임한 터라 송헌주의 첫 1년간의 목회는 활발했다. 그가 부임하던 1916년 3월 현재

으로 저조해가고 있는 한인감리교회 상황을 볼 수 있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1915년 이후 국제 외교를 통한 광복 쟁취의 이승만과 군사력을 통한 광복 쟁취의 박용만 간

을 둔 것 같다.

독립운동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후 송헌주는 독립운동에 앞장선다. 그



성경도 신앙 (17)

청교도들의 예배 (6)

3.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

1) 예배 예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변증

우리는 성경에 규정하는 올바른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예배를 제안하는 이들 중에는 로마 천주교회와 같은 장엄한 의식 중심의 예배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오순절 교회나 빈야드(Vinyard) 운동과 같은 신비 체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신시대를 수용하기 위해 설교 중심의 예배로부터 탈피하여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롬12:1). 그러므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볼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참 예배를 찾아보아야 한다.

2) 우상숭배종교가 된 로마 천주교의 예배

초대교회의 예배가 형식적인 면에서 단순하고 내용면에서 말씀 중심적이며 영적이었다면, 중세

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와서 떡의 모양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 중세인의 신앙이 되었고, 사제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땅으로 불러오는 마술사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도들은 떡으로 변한 그리스도를 받아 먹기 위해 성찬상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 성찬에 사용한 떡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까지 퍼지면서 성찬에 대한 미신이 편만하게 되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성인과 성물 숭배를 가져왔다. 성경은 고위 성직자의 전용물이 되었고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은 사제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다가 무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 제일교회)

들의 유품들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교회회의를 통하여 온갖 미신적인 예배를 교회에 소개하고 성물을 보관하는 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선언하자 재력가들은 성물의 진위를 막론하고 성물로 보이는 것을 수집함으로써 성물 숭배가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3) 교회 개혁자의 예배의 흐름

교회가 성인과 성물 숭배에 빠지고, 화체설 예배가 미신화 되자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다.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는 "우신예찬"(The Praises of Folly)을 저술하여 성물 숭배의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비판하였다. 독일의 교회개혁자 루터(Martin Luther)나 불란서의 개혁자 르페브르(Jacques leFevre)도 성물 숭배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십자가의 파편들이 온 지구상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으로도 족히 책 한권이 되고도 남는다. 작은 마을이라도 성물을

중세교회는 인위적 요소로 예배를 복잡하고 형식화시켜 성경의 무지로 성인, 성물숭배 등 이교적 행위로 오염

연극이나 팬타마임과 같은 도구를 통한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연극 예배를 실시하고, 인터넷 예배를 보편화 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예배를 성경을 통해 살피고 유추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율법에 선지자들을 통해 제시해주신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스스로 만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분이 명하신대로 드러져야 한다(레10:1-2).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화하고 하늘과 땅이 없어 질지라도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마5:17) 말씀에 기록된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였지만 제물 자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신약의 예배 또한 예배 행위가 예배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수행해야 할 예배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사람의

교회는 인위적인 요소가 예배를 복잡하게 만들고 형식화되기 시작되었고, 성경의 무지 때문에 이교적인 예배로 오염되면서 12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피터 왈도(Peter Waldo)는 교회회의나 교황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지만 성경만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 개혁을 외쳤다. 성경대로 믿고 생활할 것을 설교하면서 예배의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1229년 스페인의 발렌시아(Valencia)에서 교회회의를 열고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100만 명이 넘는 그의 지지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성경적 예배 운동을 박해하였다. 천주교의 죄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교황청은 성경을 금지도서로 규정하고, 교황의 허락 없이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말씀의 빛이 전혀 없는 암흑시대를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예배는 무지와 미신 가운데 드러지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예배는 점차 미신적이 되었다. 예배 때 성호를 그으며, 분향을 하는 등 인위적인 요소들이 비판 없이 교회에 유입되었다. 사제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

지한 사제들로 인하여 교인들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저주하며 벌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거룩한 성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다. 성인 숭배는 복음을 위해 순교한 성자들을 기념하는 운동과 함께 시작하였는데, 인간이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순교의 공을 쌓은 성자를 통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상이 만연하면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성인 숭배는 중세 말기에 이르러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부자들은 연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 성물을 모아 숭배하였다. 이는 성자들의 유물을 잘 보관하게 되면 성자들과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사상이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 널리 수집되던 성물 가운데는 예수께서 유아였을 때 차고 다녔다는 기저귀, 아기 예수가 머물렀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져왔다는 뱃집,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St. Anna)의 손톱 등 예수님과 관련된 것과 여러 성인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없다. 간단히 말해서 만일 찾을 수 있는 조각들을 모두 수집한다면 넉넉히 한 배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하는 바 한 사람 예수께서 과연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철면피가 아니라면, 그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 마귀적인 것이다." 교회 개혁자들은 이와 같이 성물 숭배의 허구를 비난하고, 성경적인 예배의 회복을 주장함으로써 무지와 미신으로 오염된 예배를 개혁하고자 앞장섰다.

영국에서 일어난 예배개혁운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헨리 8세의 수장령과 함께 영국은 로마 교황청과 결별했지만, 왕실과 교회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인 미신적인 예배를 장려하였다. 이에 대해 청교도들은 미신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임을 밝히고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성물과 성상 예배, 성호를 긋는 행위, 사제 복장의 착용 등을 비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던 초대 교회의 예배를 영국에서 회복하고자 했다.

younsklee@hot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구글, 애플 등 대표적인 IT기업의 직원들은 과연 자녀들에게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강조할까? IT 전문가들이니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몰두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다.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고,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도 없다. 대신 불필, 종이 연필 등 아날로그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고 독서 및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좋은 인성을 배우고자 애쓴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한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가 갖는 장점이 있다.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바로 링크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는 좋은 성품(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면(面)대면(面) 협력 학습 기회를 감소시킨다.

디지털 교과서의 큰 장점으로 '완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많이 거론되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에 필요한 전반의 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교 내의 학습을 개별화시킴으로써 교사, 교우와의 면대면 협력 학습 기회를 줄여줄게 만든다. 면대면 협력학습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살빈(Slavin)과 케이건(Kaga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력학습법을 사용한 학급이 그렇지 않은 학급에 비해 교우간의 우정이 더 돈독해졌다고 한다. 또한 매든(Madden)과 슬라빈(Slavin)은 협력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학습이 부진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미국 이성교육의 개혁자, 필립핏치 빈센트는 협력학습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룹 공동의 성공에도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와 의사소통하며 생각, 감정, 행동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수용, 모방함으로써 좋은 성품을 개발시킨다.

면대면 협력을 통해 아이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품'을 배워간다.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 좋은 성품을 형성하려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진심하게 대화하면서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을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좋은 성품을 가장 활발하게 배울 수 있는 면대면 협력학습과 의사소통을 소홀히 여기게 할 수도 있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교사와 교우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SNS등으로 토론하는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고안하고 있지만 이미 아이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기보다 문자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가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에 익숙하다. 극단적인 사례로 현실에서는 한마디 대화도 못하다가 인터넷에서는 서슴없이 악플을 다는 '가면' 쓴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면대면 대화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인성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줄게 되므로 다양한 폐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또한 디지털 기기 개발자인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만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한 학습을 지양하고 책을 읽고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좀 더 고심해 보게 만든다.

우리는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교육'에 대한 맹목적 호감을 잠시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 인성 교육진흥법을 제정할 만큼 우리는 지금보다 책임 있고 함께 협력하는 시민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공교육은 완전한 자기주도 학습보다 지적체(智德體)의 균형적 발달과 좋은 성품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성취를 맛볼 줄 아는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더 검증한 뒤 대체 방안이 아닌 보완 방안으로 도입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목회서신

회개와 하나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세대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에 대한 키워드(Key Word)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세대에 '회개와 하나'가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회개 (Repentance, 悔改)

십여년 전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목사님이 교회부흥과 성장을 위하

여 고민 중, 수정교회(Crystal Church)의 교회성장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개강예배에 로버트 솔러 목사님의 말씀 중, 교회가 성장, 부흥하길 원한다면 '죄, 회개, 십자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 상기 4가지 주제를 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4가지 주제, 특히 '회개'에 대하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부담을 갖고 떠나갈까 봐 전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역사는 바로 회개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

느니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이,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으므로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소망도,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리 교회에 열심 출석하고, 찬성, 봉사해도 기도의 응답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회개는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Nothing!).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2. 하나 (Be One)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아

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들(제자들과 성도들)도 내 안에 있어 하나되게 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요17:21-23). 하나님의 영적 동심원, 즉 제자(성도)들(예수님<하나님으로 하나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다" (엡4:4-6)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사도 바울도 모두 주 안에서 하나되길 원하지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떤 단체든 모두 하나되지 못하고 다 두고, 싸우다가, 마침내 헤어지고, 분열하고 있음이 현실적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 이간질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 하나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말씀기적 사탄의 교회파괴공작은 가정파괴에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파수하고, 복음화 시켜 하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1)결혼의 원리(마11:29, 빌2:5-8), (2)화해의 원리(마5:24, 고후5:18-19) (3)용서의 원리(마6:14-15, 18:18, 23-35) (4)사랑의 원리(요 13:34, 롬13:8, 고전13:13)입니다. 이상의 4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5)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되므로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도록 힘써십시오. jaekunlee00@hotmail.com

자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질문과 의문을 낳았던 재정과 관련하여 속 시원한 발언을 던졌다.

임 사장은 "건물 매각 후 받게 되는 금액을 놓고, 세금, 부채 기타 모든 비용을 다 넣어서 계산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받는 세금을 조금 줄여볼까 해서 바이어에게 도네이션을 통해 구입비를 좀 낮출까라는 제안도 했었다. 분명 변호사를 통해 절세라는 의견을 받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이것이 탈세와 관련된 문제로 비춰질까봐 마지막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정도를 가야한다는 생각에 바이어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네이션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세금문제를 해결했다. 세금과 부채, 이사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 송출 스테이션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이 신사옥을 마련하게 됐다. 재정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건전성과 균형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두 차례 공개모금 행사를 해왔지만 올해는 선교하는 방송에 맞게 봄에 하려던 공개모금 행사를 포기하고 KWMC(한인세계선교대회)를 돕는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올 가을에 있었던 모금행사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10월 한 달을 계속해서 '공개헌금 모금의 달'로 정해 접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다음세대 교회의 리더십 개발과 올바른 예배와 찬양의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올가을 본 방송사 주최 'CCM 경연대회'를 열게 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주최 조용기 원로 목사 초청성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조용기 원로목사 초청성회 성회 앞서 개교4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가져

베데스다대학교 주최 조용기 원로 목사 초청성회가 10일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진유철 목사(북미총회 부총회장, 본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성회는 김충남 목사(북미총회 중경총회장, 순복음산호세교회 담임)가 대

표기도를, 이상호 목사(LA지방회, 주님의기쁨교회 담임)가 성경봉독, 본 교회 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의 지난 50년간 사역해온 발자취를 영상으로 소개했으며, 사회자의 소개로 조 목사가 '사마리아 복음증거'(행8:4-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나성순복음교회를 가득 메

운 청중들이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회는 조용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성회가 열리기전 오후 5시 본 교회 EM에베실에서 열린 베데스다대학교(BU) 개교 4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는 BU 3대 총장 이창길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BU의 역사를 교무처장 김신호 교수가 소개했다.

이러진 학생간증시간에는 아타 쿠브라코바 학우와 김경안 학우가 간증했다. 또한 이상명 미주장신대 학교 총장, 송정명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그리고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감사패증정 시간을 갖고 이창길 목사(3대 총장), 이영훈 목사(4대 총장), 진유철 목사(7대 총장), 주선영 목사(WMBC TV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성혜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다며 BU설립자 조용기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 조용기 목사의 80세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신학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전영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예수, 부활로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으로” APU ‘삼위일체’ 신학강좌, 강사 전영호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회장 최장식 목사)는 '삼위일체' 신학강좌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PU LA센터에서 전영호 박사(미주리 캔자스시티 세인트폴신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청

한 가운데 열었다. 전영호 박사는 "유대인은 한 하나님만 믿는 단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초월적 하나님을 믿었으며 역사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우리와 관

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박사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으며 유대교 전통 안에 자라셨다"고 언급하며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전수받으셨지만 삼위일체론적 단일신론을 부여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알기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알 수 없다. 또한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DNA는 유대교였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단일한 한분이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으로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영호 박사는 아리우스 논쟁과 영지주의 등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예장백석 캘리포니아 노회 진태봉 강도사 목사 임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진태봉 목사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캘리포니아 노회(노회장 류낙영 목사)는 진태봉 강도사 목사 임직식을 10일 오전 11시 온하늘교회(담임 연제선

목사)에서 가졌다. 노회장 류낙영 목사 집례로 시작된 임직예배는 회록서기 정석수 목사가 기도, 회계 연제선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류낙영 목사가 '칭지기 사명'(창1:2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기 이태근 목사가 임직자 소개를 했으며 서약, 안수기도, 성의착의, 안수례, 공포, 안수증 및 임직패 수여로 이어졌다.

부노회장 김요한 목사가 권면을, 이태근 목사가 축사를, 이은수 목사가 축가를 했으며 진태봉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진태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진태봉 목사는 아주사퍼시픽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과정(M.Div)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에서 목회학박사과정(D.Min)을 밟고 있으며 현재 인랜드교회(담임 오경환 목사)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 복음방송(GBC) 언론사 간담회에서 임덕순 GBC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재정문제 공개 언론사 간담회서...사옥이전, 제도약 다짐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임덕순 장로)이 오랜지카운티 에너하임 시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제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GBC는 7일 오전 11시 에너하임 신사옥에서 언론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GBC의 활동을 공개하고 새 각오를 나누었다.

임덕순 사장은 "GBC는 그동안 부채문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GBC 4대 사장으로 취임해 방송국 정상화를 위해 LA한인타운에 자리했던 GBC 사옥을 매각을 통해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신사옥으로 이전한 GBC는 오랜지카운티 중심으로 청취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원으로 운영되는 LA 오피스와 함께 두 지역을 적극 활용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터박 기획실장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노후된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GBC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듣는 라디오가 아닌 보이는 라디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GBC와 청취자들이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방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GBC는 '선교25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선교사를 묶는 네트워크로 활용하며 현재 40개국 80여명의 선교사들에게 매달 100달러의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GBC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후원하는 선교사와 지역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임덕순 사장은 이날 간담회

때 정부로부터 펀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많은 정부산하 지자체에 NGO들이 자금과 인적자원을 잘 이끌어내고 있으며 불교계를 비롯한 타종교계는 물론 이단들까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회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외면하고 교회에서 걷어 들인 헌금에 의존하고 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하고 흠어지는 교회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모이려고만 하고 못나가게 한다. 오랜 시간 교회 내에 모이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흠어지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회가 흠어지게 하는 방법은 선교다. 반드시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카페교회, 공익을 위한 상가, NGO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대형교회의 역할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사무총장은 "NGO가 커지면 정체성의 혼돈이 올수 있다. 그래서 NGO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NGO와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가을학기 학술 세미나에서 임진기 사무총장이 강의하고 있다

“NGO와 선교” ...강사 임진기 사무총장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학술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가을학기 학술 세미나가 "NGO와 선교"라는 주제로 4일과 6일 저녁 7시30분 임진기 사무총장(전 국제구호개발NGO월드휴먼브리지 사무국장/현 WHH 재단설립추진단 사무총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진기 사무총장은 "교회만큼 자원이 많은 곳이 없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정부와 관련 없이 공동의 이해를 가

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다. 또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을 위해 일하는 곳이며 정책을 나누는 영역"이라 설명했다. 임 사무총장은 "교회역시 NGO로 볼 수 있다. 즉 제3세계에 선교를 하기위해 NGO의 틀을 가지고 가면 파워풀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NGO역사를 기독교가 주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드비전이다. NGO는 정책을 시행할

동부교계 게시판



2016 한민족통일포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2016 한민족통일포럼(2016 Korean Unification Forum) 뉴욕통일포럼이 "평화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6일(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개회예배 설교는 김성국 목사, 발제는 1) "독일통일과 교회의 역할" 이규영 원장(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2) "북북통일과 교회의 역할"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평화한국 대표), 토론은 홍양호 박사(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 통일부차관), 안인혜 교수(고려대학교,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마인섭 부총장(성균관대학교), 조운영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가 진행한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동시통역되는 이 포럼은 (사단법인)평화한국이 주관하고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다.

▲문의: (718)886-4040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감사예배 및 음악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장재웅 목사)가 설립 3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음악회를 갖는다. 일시는 16일(주) 오후 5시 분당. ▲문의: (631)499-1260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기념예배 및 선교찬양제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기념예배 및 선교찬양제가 11월 13일(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연세대 뉴욕동문 중창단, 월드밀알선교찬양단, 뉴욕장로성가대, 뉴욕필립스침례교무용단, 프라미스교회성가대, 뉴욕권사선교찬양단, 프라미스어린이합창단, 어린이국악찬양단이 공연하며 언더우드 선교사 4대 후손의 특별 인사가 있다. 미국장로교동부한미노회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뉴욕동문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가 주관한다. ▲문의: (718)213-8645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칸타타 "주의 성전" 초연...이상운 작사, 김지영 작곡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5회 정기 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9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창립된 동 합창단은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이상운 작사, 김지영 작곡의 칸타타 "주의 성전"을 초연했으며, 지휘 양재원, 피아노 이진현, 협연 베넬 체임버 앙상블, 소프라노 김은희, 메조 소프라노 백성화, 알토 박영경, 테너 이성은, 바리톤 한경진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연주회에 앞서 10년 근속한 조애선, 이월현 권사에게 표창장이, 베넬체임버앙상블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문석호 목사의 기도도 시작된 연주회 1부 합창은 '아름다운 주의 영광', '사랑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피로 하나를 이루자', 2부 합창은 '나를 따르라', '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옷자락', '참 좋은 신 주님' 등이, 3부는 칸타타 '주의 성전'이 연주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CBSN가 "카네기홀 찬양 대합창제" 수익금을 3단체에 각 1만달러씩 전달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등 3곳에 후원금 전달 CBSN "카네기홀 찬양 대합창제" 감사예배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장 문석진 목사)이 지난 6일 "카네기홀 찬양 대합창제"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 CBSN은 국제장애인선교회(대표 임선숙 사모, 회장 노기송 목사),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 뉴저지말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 등 3곳에 각각 만 달러씩 성금을 전달했다.

오전 11시 뉴욕그레이넬교회(담임 양진석 목사)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박맹준 목사 사모로 이주실 목사 기도, 남후남 장로 성경봉독(눅5:1-11), 에리카문 특송, 방지각 목사 설교("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로 이어졌다.

방 목사는 "하나님께서도 지원자가 아니라 차출해서 쓰시는데 첫째 열매를 맺을 사람, 둘째 주님의 말씀에 맹종하는 사람, 셋째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넷째 깨끗한 사람, 다섯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차출하시는 사람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김명옥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결과 보고는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의 인사로 시작됐다. 문석진 목사(사무총장)는 결과

보고를 통해 "합창제가 있기까지 5번의 준비 기도회와 13번의 준비 위원회를 가졌다. 카네기홀 공연에서 12개 합창단 총 800명이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미주 지역의 합창단들과 한국의 합창단까지 함께 연합해 하나님을 찬양한 이번 합창제는 갈등과 분열로 상처를 입은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관람한 분들이 카네기홀이 세계 최고의 무대인만큼 그날 공명과 울림이 아주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행사를 위해 협력한 카네기홀 담당자들이 이번 행사 스템들의 성실한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또 행사의 결과로 세 단체에 3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이어 "전체 수입금은 117,378달러, 지출금 117,378달러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성금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보고했다.

CBSN측은 행사를 위해 수고한 개인과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선교후원이사 등을 선정했으며, 홍보대사로 에리카문을 위촉했다.

(기사제공: CBSN)

뉴욕, 뉴저지 지역 교사 부모 세미나 뉴욕어린이전도협회, 10월 27일(NY), 25일(NJ)

뉴욕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종대 목사)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교사 부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종대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교회학교이지만 현실은 관심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도사님이 없거나, 교사가 없어서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고민하는 교회가 많으며, 또한 전도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회학교는 큰 혼동을 겪는데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본 세미나는 교회 안에 1시간에서 1시간30분의 예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훈련한다.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선교법, 전도법, 상담법, 경건훈련 등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실습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울 수 있다.

최 목사는 "단지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아는 교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

다"고 소개했다.

△뉴욕: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10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 △뉴저지: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10시, 주스원교회육관(담임 육민호 목사)

△교육과목: 성경공부와 준비와 제시(교수법), 어린이 전도법(글없는 책), 음악 지도법, 회심의 중요, 교사의 중요성, 성구 암송법, 새로 믿게 된 어린이 격려, 이웃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 이웃 어린이 전도반 조직, 신약성경의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시가지적 의사전달, 훈육, 어린이 구원상담.

△참석대상: 교육에 관심 있는 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디렉터, 선교사(선교후보생), 신학생, 부모, 성도 △등록비는 165달러.

자세한 문의는 (312)286-4646이나 bigbell59@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기금모금 후원만찬 행사에서 이사진들과 정정숙 원장(왼쪽 네 번째)이 포즈를 취했다.

패밀리터치 기금모금 후원만찬 행사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 만찬 행사가 지난 7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행사는 25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하트스트링스 첼로앙상블의 특별 공연, 이진현의 마술 공연, 조이웰로우십처치의 선교목사 Bradley의 연설로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패밀리터치 정정숙 원장은 "Home Sweet Home"이라는 주제의 스피치에서 '가족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설했으며, 김중정

부원장에게는 10년간의 헌신으로 Life Time Achievement 봉사상이 수여됐다.

또한 각 지역에서 패밀리터치에 모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튜터(tutor)와 멘토링십(mentorship)을 제공한 1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후원만찬에는 artist Joseph Choe가 자매증을 받고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아름다운 사람들' 코너를 통해 소개했으며 예술가 Joseph Choe는 의미있는 작품들을 후원모금 육성을 위해 기증해 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도왔다.

이사와 스태프들은 패밀리터치의 꿈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각 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패밀리터치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다.

▲문의: (201)242-4422 웹사이트: www.familytouchusa.org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 PS 81에서 한글날행사

지난 10월 9일 한글날 570돌을 맞아 뉴욕 PS 81에서 한글날 행사를 개최했다.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과 한국어 세계화운동본부(한국) 주관으로 PS 81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심의두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총재 등 한글의 세계화와 관련된 여러 한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 PS81 3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한글 수업에서 배웠던 한국 동요를 울돌과 함께 선보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양 기관은 향후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더 많은 한글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기사제공: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



한글날 행사를 마치고 주최측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2: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세례기도회: 오전 9:30 성경공부: 화, 토 오전 10:00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예 배: 오후 8:30 세 배 기 도 회: 오전 6:0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4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1:30 주 일 4부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세 배 기 도 회: 오전 6: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세 배 기 도 회: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뉴욕순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 일 1부 예 배: 오전 7: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3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4부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세 배 기 도 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getsemane.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영 양 예 배: 오후 1:30 최 후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 요 영 양 예 배: 오후 8:30 금 요 영 양 예 배: 오후 8:30 세 배 기 도 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10 세 배 기 도 회: 오전 9:40(화-금)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 10:50 주 일 학교: 오전 10:50 영 양 선 성경 공 부: 오후 1: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2:30 주 일 학교: 오후 3:30 수 요 찬 양 모 섬: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 일 예 배: 오전 10:45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0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1:15 주 일 4부 예 배: 오후 3:00 주 일 5부 예 배: 오후 3:00 세 배 기 도 회: 오전 6:00(화-토) 금 요 기 도 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 일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세 배 기 도 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 일 1부 예 배: 오전 8: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0:3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12:15 주 일 4부 예 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예 배: 오후 8:00 세 배 기 도 회: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1:30 NCF영양: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 일 1부 예 배: 오전 8: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9:30 주 일 3부 예 배: 오전 10:30 주 일 4부 예 배: 오후 2:00 주 일 5부 예 배: 오후 5:00 주 일 6부 예 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16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3부 예 배: 오전 1:00 주 일 4부 예 배: 오후 3:30 주 일 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 일 1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2부 예 배: 저녁 7:00 수 요 기 도 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3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2:00(영양) 수 요 예 배: 오후 7:30 세 배 예 배: 오전 5:30 금 요 예 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8:00 주 일 4부 예 배: 오후 9:00 (1, 2, 3, 주스비내선교회) Tel: (595)211-574-985 E-mail: hanjkr@gmail.com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 배: 오후 11:15 수 요 선 성경 공 부: 오후 7:0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5:30(화-토) 세 배 기 도 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3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12:30(영양) 주 일 4부 예 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표적과 기사” ...강사 김선교 선교사 제35회 HYM 청년연합집회 성황

제35회 HYM(대표 더글러스김 선교사) 청년연합집회가 '표적과 기사' 주제로 8일과 9일 양일간 세리토 스션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김선교 선교사(다윗의 열쇠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호6:1-5’ 중심으로 말씀선포를 한 첫날 집회에서 김선교 선교사는 “회개는 의지적 결단이 수반된 돌이킴”이라 정의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대부분 연약함을 구실로 합리화를 한다. 하지만 죄를 짓는 이유는 좋아서”라고 지적했다.

김 선교사는 “회개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제35회 HYM청년연합집회에서 강사와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룰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 확신을 주며 돌아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개는 또한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돌아갈 곳은 십자가”라고 말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날 빌2:5-11 말씀을 선포한 김 선교사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이유가 주님이기 때문이길 바라신다.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겸손이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인간의 겸손은 하나님 없이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도우심 없이 한결같은 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바로 겸손”이라 설명했다.

이번 집회는 예년에 비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된 집회였으며 김 선교사가 선포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집회장소를 찾은 100여명의 청년들이 경청하며 메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는 행복세미나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인가정상담소 행복세미나 “더불어 행복하기” 10월 22일 오전 9시-정오, 동양선교교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오는 10월 22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가족 세미나 ‘더불어 행복하기’를 개최한다.

행복세미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 강의와 ‘부부갈등’ ‘학부모교실’ ‘어린이 양육’ ‘헬스라이프’ ‘스트레스 관리’ 등 5가지 선택 강의로 진행된다.

안현미 심리상담부서 매니저는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까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수잔정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세계 보건기구(WHO)는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우울증을 말라리아 다음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꼽고 있다”며 “행복을 위해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10명중 1명이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은 나이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자는 화를 내고 노인은 멍하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심대들은 소생활동이 줄어들고 폭식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나단강 심리상담부서 디렉터는 “부부들은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미술재료로 고민이나 바라는 점을 건강하게 표현해보고 이후 바람직한 대화법, 자기표현,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복세미나는 특별히 영어권을 위한 강의도 마련이 되며 Stress Management ‘Stressbuster!’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편 상담소는 참가자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래밍으로 아트 수업을 진행한다. 6세 이상의 자녀는 아트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6세 미만의 자녀는 만들기와 그리기로 구성된 힐링 플레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좌석 제한이 있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행사는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또한 추첨을 통해 태블릿, 스파 입장권, 트레이너즈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나눠줄 예정이다.

▲문의: (213)389-6755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로 열린 LA Free Health Screening Fair 행사에서 한 아들이 발달사항을 점검받고 있다

LA Free Health Screening Fair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 0-5세 발달장애 상담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는 LA Free Health Screening Fair 행사를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었다.

로사장 소장은 “0-5세 사이가 아이들이 발달문제와 장애가 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해야 한다. 그래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문가 20명과 자원봉사자 30명이 참가해 행사를 돕고 있으며 찾아온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방문한 김가빈(20개월) 아동의 어머니인 김나영 씨는 “작년

에는 아이가 8-9개월이라 점검할 것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1살이 되니 눈에 보이는 염려거리가 생겼다”며 “남자아이의 말문을 여는데 좀 늦는다는데, 행사장에 찾아가보라는 주위권유로 오게 됐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고, 좋은 정보를 얻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각, 안과, 치과, 정서발달, 대근육/소근육 운동발달, 언어발달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녀의 행동문제와 심리문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총 5부...합창, 독창, 외국곡, 한국곡 다양하게 남가주연세콰이어 제11회 정기연주회

남가주연세콰이어(단장 이상은, 지휘 이영두, 반주 안정희)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8일 저녁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박모세 목사(살롬선교회) 기도와 김지백 남가주총동문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연주회에 앞서 이상은 단장은 “특별초청된 바리톤 진솔 씨가 갑자기 건강상 문제로 임원해 참석이 불가능했다. 지난 2-3일 동안 극적으로 메트로폴리탄오페라 2009 우승자인 테너 이상은 씨와 연결돼 초청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단에 오른 연세콰이어 단원들은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기쁘게 노래를 하자’를 오프닝송으로 선사했다.

또한 특별 초청된 테너 이상은 씨는 바리톤 진솔 씨가 들려줄 예정이던 ‘청산에 살리라’, ‘벚노래’를 불러주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음악회는 총 5부로 나누어 합창과 독창, 외국노래, 한국노래 등 다양하게 진행됐으며 김경수씨의 트럼펫 독주도 이날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12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글로벌국제선교연합) 주최 제 12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운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가 북가주 지역 월넛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커버넌트처치(담임 Jeef Reed 목사)에서 10월 15일(토) 오전 9시-오후 1시(오찬제공), 10월 16일(주) 오후 5-7시(마치고 푸드뱅크) 열린다. “Behold, I will do a new thing”(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사43:19)라는 주제로 35여 다민족 교회가 참여한다. ▲문의: (925)639-9527, 988-9191

OC제일장로교회 설립39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 설립 39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16일(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신병우 원로장로 추대, 김진용 장로장립과 6명의 안수집사, 5명의 시무권사의 임직식을 갖는다. ▲문의: (714)899-9191

은혜한인교회 추계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계부흥성회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주제로 13일(목)부터 16일(주)까지 열린다. 강사 양병희 목사(서울영안교회 담임). ▲문의: (714)446-6200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관련 무료강의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무료 강의를 ICMM(선교와목회활동위협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 GL2 강의실에서 21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제임스구 교수. ▲문의: (714)393-4595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 찬양팀 단원모집
청소년뮤지컬 찬양팀인 Seeds of Worship에서 East LA 지부를 창단하고 새 단원을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1-12학년이며 오디션 및 첫 연습은 2016년 11월 4일(금) 오후 4시 엠마오장로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562)237-0160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창단30주년 기념음악회
재미기독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창단30주년 기념 음악회가 23일(주) 오후 7시30분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지경 씨와 바리톤 정재혁 씨의 독창과 듀엣, 박홍식 씨의 클라리넷 연주 등의 찬조 출연이 있다. ▲문의: (818)406-2088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소망포럼이 10월 22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엘바인 베델한인교회(18700 Harvard Ave)에서 열려 ‘삶의 마지막 숙제, 아름다운 마무리’, ‘심각한 질병환자에게 주는 호스피스 케어의 선물’, ‘인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 ‘생명연장치료는 언제 멈추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562)977-4580

제11회 이단대책 정기세미나
미주 기독교이단대책 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는 제11회 이단대책 정기세미나를 15일(토) 오후2시부터 5시까지 LA연합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111 N. Virgil Ave)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신천지, 가톨릭, 미국 현주소’이며 강사는 박동욱 목사(노헤미야사역원 원장), 조남민 목사(한인성경성교회 대표),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문의: (213)484-2574

GBC 미주복음 방송 주최 CCM경연대회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임덕순 장로)는 CCM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22일(토) 1차 예선(장소 GBC공개홀)과 11월 12일(토) 파이널라운드 본선이다. 본선 시상내역은 대상 상금 2천달러와 트로피, 금상 상금 1천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8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그리고 본선 참가자 8팀은 GBC CCM경연대회 기념음반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찬양을 사랑하는 남녀 교인 누구나 가능하며, 기존곡과 창작곡 등 모든 곡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714)484-1190, (213)381-1190



오렌지카운티 코리안 마스터코랄 창단연주회가 감사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OC 코리안마스터코랄 창단연주회 성황

오렌지카운티 코리안마스터코랄(OCKMC, 단장 장경빈, 지휘 이미영) 창단연주회가 9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경빈 단장은 “가을향이 묻어 나는 바람과 달빛도 깊어지는 10월의 가을밤에 OCKMC의 창단 연주회를 열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

다”며 “이번 연주회가 사랑과 감동과 감사와 위안과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인근 주류사회에 건전한 정서함양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업에 동참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합창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세콰이어 단원들이 찬양을 들려주고 있다. 왼내는 테너 이상은씨.

남가주사랑의교회 조성환 목사의 개회기도와 영민 가수위원의 환영사로 시작된 연주회는 ‘시편 23편’, ‘주보다 더 날 사랑하는 이 없네’,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없으면’ 등 성가곡과 ‘고향의 노래’, ‘나를 깨는 처녀’, ‘경복궁 타령’ 등 민요와 동요를 불러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풍겼다.

또한 Seeds of Worship과 박트리오가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언약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개요

성경의 핵심 언약

이 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첫째: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목표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언약의 통일성을 통해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된다.
셋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감동된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나라의 복된 삶이 열린다

저자_백 보 현
Yui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M.Div)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D)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M)
Cohen University 기독교병종학, 기독교교리사 교수
남가주 호스피스 전도회 설립
저서- 지성과 신앙의 대화 (2001 콜란출판사)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 디아스포라의 종말을 관망(2003.콜란출판사)

권당 \$18 (무료우송) 10권 이상 \$13 (무료우송)
주문처 (714)200-3430
Pay to order of: Simon Paek
2523 Avocado st, Fullerton CA, 92835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정리하여 이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나감을 밝힘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증거합니다.
| OC 교회협의회 중경회장,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업 목사의 추천사 중에서 |

2016 교단 총회로 본 한국교회

①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성숙해진 총회

“개혁·거룩·자성” 목소리 컸지만 ‘기득권 교수’ 한계도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과 침례교단의 9월 정기 총회가 마무리됐다. 전반적으로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방안, 다음세대 및 미자립교회 대책, 신학대 구조조정, 한국교회의 연합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최근 막을 내린 국내 주요교단들의 총회현장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개혁과 거룩성 회복, 자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 논란 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26일 개회했다. 그러나 첫날 무리 없이 임원 선거를 치렀고, 논란이 있던 후보들의 자격 박탈과 새로운 후보 추천 및 등록에 이어 둘째 날 선거까지 차례로 진행하면서 안정 궤도에 올랐다. 총대들은 2017년에 종교개혁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지속적인 사업을 마련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국교회 개혁선언문 발표 및 종교개혁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나부터’ 캠페인 전개, 종교개혁기 탐방 등의 사업도 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총회 셋째 날 회의에서는 전직 총회장들이 죄책고백을 해 눈길을 끌었다. 총회장들은 신사참배가결, 교권과 금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 등을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듯 우리도 그랬다”며 “한

국교회는 이런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낱에는 총대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면서 죄를 고백했다. 예장통합은 총회에서 종교개혁500주년과 관련해 11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사업은 ‘나로부터 개혁하는 교회’라는 기치에 초점을 맞춰 전방이다.

예장합신(총회장 최철용 목사)의 경우 3일간 총회에서 큰소리가 오가는 일이 없었다. 회의에서는 부작절할 표현이 나오면 지적 사항이 나왔고, 당사자는 즉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지난달 21일 정치·재정적으로 교단 내 갈등을 빚었던 문제를 대화합 차원에서 모두 덮기로 하고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총회의 재정 손실, 대전 침례신학대 이사회 파행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의원들은 유영식 총회장과 조사위원, 각 조사대상자들의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사보고서 폐기 및 대의원권이 제한된 14명의 전원 복권이 합의됐다.

이번 총회는 소란스러웠던 최근 총회들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 교수’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 안수와 여성 총대 늘리기 등의 안건은 각 총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② 위기의 신학대 구조조정 시동

‘넘치는 목회자’ 발등의 불…신학대 정원 감축 나선다

신학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성도 수 감소, 목회자 과잉 등으로 목회자 수급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인구감소로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정기총회에서는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 신학대학원 정원 감축 합의’가 전격 통과됐다.

6월 감축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대원생 모집 때부터 장로회신학대와 대전신학대, 영남신학대, 부산장신대 등 예장통합 산하 7개 신학대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4%씩 정원을 감축해 총 134명을 줄이도록 했다. 신대원 목회학석사(MDiv) 과정 97명, 목회연구과정 37명 등이다.

감축 후 7개 신학대 신대원 정원은 758명으로 현재 정원(892명)보다 15% 가량 줄어든 전망이다.

앞서 예장통합 신학교육부는 ‘교단 목회자 수급계획 연구’를 통해 “신대원 정원을 지금보다 100~120명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의 관찰치를 이용해 현재 및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한 조사에서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증가하는 교단의 교인 수 등을 감안할 때 매년 781명 정도의 목사가 충원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신대원 입학정원 총수인 892명에서 100~120명 정도 정원을 축소해야 목회자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장고신(총회장 배광호 목사)도 학생 및 교수 정원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 총회장은 최근 취미 인터뷰에서 “고신대 신학과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을 신설해 학생과 교수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부의 권장사항으로 우리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도 타 대학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신대 관계자는 “모든 대학들이 지난해 평가 받은 결과에 따라 입학 정원과 학과

③ 교계 흔드는 세력에 단호 대처

‘이사동람’에 맞서 ‘교회 수호’ 한목소리

교계 안팎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사이비 집단과 동성에 확산, 이슬람 침투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는 올해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주요 교단들은 정통 교리 수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도 마련했다.

◇이단·사이비 대책 붓물=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총회 법률자문단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은 이단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상대로 벌이는 거액의 소송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은 이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 정통 교리에 대한 제재로 된 이해가 필수적이라 보고 총회 산하 신학대의 커리큘럼과 목사고시에 필수과목으로 ‘장로교 교리’를 넣기로 했다.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은 전국 노회 산하에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년 6월

등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도 얼마 전 교육부로부터 교원양성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와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부실대학에 포함된 일부 기독교 대학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 재정보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서울기독대(총장 이강평 목사)의 경우, 학생들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기독대가 소속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신조광 목사는 “학교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데 구성원들과 논의하면서 (구조조정) 시기를 가능하고 있다”면서 “학교발전을 위해 교단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신학대(총장 이억범) 이준호 교무처장은 “교육부 정책을 수용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사구조 개편과 인원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지정했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기장)도 이단경계주일을 지정기로 했다.

◇이단 유관 인사들과 ‘교류금지’ 재확인=예장합동은 신학부 보고를 통해 신목주 흥혜선 황규학 씨에 대한 이단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교단 소속 성도들에게 이들과 ‘참여 금지’ ‘관계 단절’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이단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취소 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직전 총회장은 김기동 박윤식 변승우 이명범 씨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 및 단체 등 4곳에 대해 지난달 초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그러나 교단 안팎의 거센 반발로 101회 총회에서 전면 폐기까지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예장통합은 향후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할 수 없도록 뜻을 밝혔다.

예장고신(총회장 배광호 목사)은 선교단체 인터콤(대표 최바울 선교사)을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

고 교류를 금지했다. 고신은 인터콥이 이원론적 오류에 빠졌다는 비판 등을 담은 고려신학대학원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인터콥 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선교와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성애·이슬람 경계령 강화=동성에 옹호·조장과 이슬람 확산에 대해서도 주요 교단들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사회부는 올해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를 전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 합동은 제100회기에서도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예장합동은 ‘동성애·동성결혼 대책위원회’와 함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

④ ‘저출산·고령화’ 대비 쟁결음

줄어드는 교세, 세대별 맞춤 전도법 개발로 돌파

국가적 저출산 문제는 교회에도 심각한 도전이다.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새신자 모시자’…전도·개혁 선교 사업 박차=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서는 세대별 전도 정책을 개발하는 내용의 전도 및 개혁선교 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노인층 전도를 위한 교재의 개발과 장년층을 전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도 포함된다.

예장통합은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도 조직하기로 했다. 총회 국내선교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예배 참여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유아세례자들의 성찬 참여는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예장통합은 유아세례자가 입교하기 전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교파들은 유아세례자들의 성찬을 허락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다음세대와 관련해 총회 산하 확신선교위원회(학선위·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주의 기독교대학교 세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학선위는 그동안 교회·학교·가정이 함께 다음세대를 키워나가는 ‘트로이카 선교운동’을 추진해 왔다.

◇‘목사·장로 정년 연장 힘드네’=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목사·장로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예장고신은 동성 간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기로 했다. 목사의 주례 대상을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과 미주의 일부 교회사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함에 따라 동성 간의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속한 이의 주례를 하지 않는다는 데도 합의했다.

예장합동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할랄 식품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반대 에 나서기로 했다. 노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슬람 확산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의됐지만 대부분 부결됐다.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데다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지적되는 등 반대 의견이 많았다.

예장통합에서는 은퇴 목사의 회원권과 투표권을 회복하도록 해달라는 헌법개정건이 부결됐다. 앞서 예장통합 총회노회 등은 “미국장로교회와 캐나다연합교회의 경우, 은퇴목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고 있다”면서 은퇴목사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다시 달라는 현의안을 올렸다. 농·어촌교회에 한해 목사를 제외한 향족직(장로·집사·권사)은 정년을 75~80세로 연장해교회는 제안을 70세로 했다. 현재 교회 향족직의 정년은 70세다. 반면 교단 산하 7개 신학대 총장의 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역시 목회자 정년 연장안을 다뤘으나 열띤 논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끝나는 목사 정년은 73세 또는 7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었다. 논의과정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교회의 현실에 대한 호소가 쏟아졌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정년이 65세를 넘지 않아,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사역지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예비 목회자들의 현실과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도 정년 연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 총대는 “목회자 공급 과잉, 택시운전·택배기사 등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목회자의 박탈감을 생각할 때 정년 연장은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예장대신, 목회자 양성·신학교육 강화

내달 21일 영성대회 개최… ‘목회자 연장교육’ 내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은 4일 서울 서초구 총회 세미나실에서 실행위원회 회를 열고 영성대회 개최와 연장교육 실시 등 목회자의 양성고 신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예장대신은 다음 달 21일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영성대회는 이미 수년째 총회의 주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500여명의 목회자가 참여해 기도과 말씀에 전념한다. 영성대회에선 평생 목회에 힘써

온 원로들의 간증과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바탕으로 한 2017년 목회계획 등이 공유된다.

신학대학원 개설학기 수준의 ‘목회자 연장교육’도 내년 1월 중순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목회자 연장교육을 정례화해 목회자들의 신학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목회 소명의식 고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목회자 연장교육은 백석대 전안캠퍼스 기숙사에서 진행된다.

비수도권 성도 줄고 목사 수는 전국서 급증

예장통합, 7년 뒤 변화 예측 4개 권역 시계열분석

지금으로부터 7년 뒤쯤 한국교회의 교세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신학교육부가 최근 교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교단 목회자수급 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권(강원·충청)과 영·호남권 등 비수도권 전역에서 성도가 급감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교회·목사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장통합 신학교육부가 교세통계자료(1987~2014)를 기초로 4개 권역별 교회·목사·전체교인 수에 대한 ‘시계열분석’(과거의 관찰치를 이용해 현재 및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을 한 결과, 2023년 중부권(강원·충청·대전)의 전체 교인 수

는 14만1856명으로 2016년(19만8220명)보다 28.4% 줄었다. 같은 기간 호남권(전라·광주)과 영남권(경상·부산·대구·울산)은 각각 41만4067명, 40만4703명으로 지금보다 9%, 5.8%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93만 7520명으로 14.3% 늘었다.

조사·연구를 총괄한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장 박상진 교수는 6일 “수도권의 경우, 평양노회 등 ‘이북노회’에 새로 가입하는 교회들이 늘면서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 권역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입 등에 따른 영향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목사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호남 지역에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영남권의 목사 수는 5056명으로 2016년(4085명)보다 23.8% 증가했다. 호남권에서도 같은 기간 4546명으로 현재(3676명)보다 23.7% 증가해 영남권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박 교수는 “교단 산하 지방신학대 신대원에서 목회자들이 20여년째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장통합 소속으로는 영남에 영남신학대와 부산장신대, 호남에 호남신학대와 한일장신대가 운영 중이다. 교회 수도 전체 권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3855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증가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호남권 2448곳(10.4%), 영남권 2463곳(9.5%), 중부권 975곳(7.8%) 등이 뒤를 이었다.

목사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임 교단장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교연, 2016 단체장 취임 감사예배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16 신임 교단장(단체장)·총무(사무총장) 취임 감사예배 및 축하예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신임 교단장이동서(예수교대한성결교회) 박용(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개신) 총회장과 전현직 한교연 대표회장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교연 법인이사 황인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양병희 전 한교연 대표회장은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전 대표회장은 “지도자는 양심,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영적·도덕적으로 이토록 부패한 것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곳곳에서 연합되지 못하는 것과 동성애 및 이슬람교, 이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를 정화하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교연은 38개 교단과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각 교단의 신학과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가 돼왔다”며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되는 데 나서야 한다. 신임 교단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요셉 박위근 한영훈 전 한교연 대표회장은 격려사, 세기총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등은 축사를 했다.

이동석 여성 총회장은 신임 교단

장 대표로 답사했다. 그는 “한교연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애써왔다”며 “우리 신임 총회장들도 각각의 역사와 전통은 다르지만 이 안에서 하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이날 행사에서 특별기도 순서를 가졌다. 공동회장 박영길 김효종 김국경 목사와 법인이사 박요한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국가와 민족의 번영 및 남북통일, 민족의 복음화 및 세계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예배는 당초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부정적자금지급 시행에 맞물려 한국교회와 사회에 분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절약한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세미나·학술대회 잇달아

제2종교개혁연구소(소장 임태수 목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로마서에 나타난 행함 있는 믿음’을 주제로 제5회 제2종교개혁신학강좌를 연다. 조봉상(골든벨교회) 목사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차이’를 주제로 강의하며, 호서대 명예교수인 임태수 소장이 ‘로마서에 나타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맡는다.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목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50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한국의 교회·정치·사회·문화 개혁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발제자는 김성봉(신반포중앙교회) 김지훈(신반포중앙교회 협동) 목사와 김철홍(장로회신학대) 교수 등이다.

한국기독교학술원(회장 노영상 목

사)는 오는 21~22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제45차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유안 카메론(미국 유니온신학교) 폴림(밴더빌트대) 베타덤(노헤미아 기독교연구원) 교수가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에 대한 주제 강의를 맡는다. 개·폐회 예배는 종교개혁 당시 예배 형식으로 재현된다. 오는 14일까지 조기등록을 하는 신청자들은 회비가 50% 감면된다(kacs.or.kr).

선교의 창 (64)

선교적 측면에서 본 중국



송종목 목사 (대학선교, Ph.D)

한국과 중국은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 지금도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한중은 1992년 8월 24일에 수교하였다. 수교 이래 한중은 여러 분야에 교류와 문물을 확대해왔다. 인터넷매체 코리아타임스에 의하면 2016년 7월 28일 기준 한국 내 체류 중국인은 조선족 동포를 포함하여 101만2,273명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00만을 넘은지 이미 오래다. 앞으로 한중 왕래객은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교류가 많을수록 돌출되는 문제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인의 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우리에게도 중국인에 대한 여러 이미지가 있다. 중국은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운명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다. 이왕이면 선린우방으로서 서로 도우며 건설적으로 발전해야 가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선교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중국과 중국인을 알아가며 동반자적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

일반적 이해

중국의 정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 km²이며 14개 나라와 접경하고 있다. 국토의 크기

로 보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 이어 4위에 해당된다. 이 면적은 세계 50개국이 거주하는 유럽 땅과 거의 맞먹는다. 인구로는 약 14억 정도이다. 해외 화교들까지 합치면 세계인구의 1/5에 해당된다. 종족으로는 총 56개 민족이 있다. 그중 92%가 한족이다. 200만 정도인 조선족은 수적으로 서열 14번째이다.

중국의 행정 구역은 22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自治區), 4개의 직할시(直轄市)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라는 2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된다. 공용어는 표준중국어로서 보통화(普通話)로 불리운다. 이 언어는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하는 화인(華人)들도 사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언어이다. 중국어를 표기하는 한자는 총 6만자 가량으로 그 중 2,500자가 상용한자이다.

역사적 이해

중국의 근대 역사는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1840년 발발한 아편전쟁은 중국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때부터 1945년까지 근 100년간 중국은 열강들의 침략과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중국은 강요에 의해 여러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영토는 분할되고 경제 문화적으로 약탈당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중국에서 일어난 자산

계급 민주혁명을 말한다.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2천여 년에 걸친 중국의 봉건군주제를 종결시키고 중화민국을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의 싸움, 일본의 침략 등으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결과는 인민들의 지지를 얻은 공산당의 승리였다.

마침내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의 20만 대중 앞에

중국인의 수는 세계인구의 1/5에 해당된다.

중국선교 없이 아시아 선교 없고 세계선교도 없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상생관계에 있다.

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중국의 근, 현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독립과 통일의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1966-76년까지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가 있었다. 이 때에 3,00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되었으며 중국문명이라는 시계가 멈추어 섰다.

때가 됨에 등소평이 1978년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그간 죽어간 울타리를 벗고 과감하게 개혁개방을 하였다. 이른바 실용주의적 노선이다.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를 하되 경제는 중국식 시장경제를 추구했다. 오늘의 중국은

모택동의 개국의 기초위에 등소평의 개혁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문화적 이해

중국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기하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식의주'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들

은 의식생활보다 식생활이 더 중요하다 여긴다. 중국은 자연 지리적 특성상 거의 외부세계와 고립된 채 오랜 세월 독자적인 문명을 유지해왔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지구의 한복판에 있다고 여기는 중화사상을 가지게 했다. 광활한 대륙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자원과 자연환경은 관심을 내부로만 집중시키게 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는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강하다.

중국인은 안정(stability)을 추구하려는 욕구 때문에 가끔씩 비정상적인 일이나 모험을 피한다. 공로를 세우기보다 과보를 받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서는 봉사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는 반

면에 소속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중국인의 의식 가운데 흐르는 공, 맹 사상 역시 현실적이다. 즉,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었지 내세나 이상향을 추구하지 않았다.

선교적 이해

아편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을 침략한 나라들은 일본을 빼고 모두 서구 열강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러시아 등은 소위 기독교 문명 위에서 발전한 나라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에 가 마약을 팔고 사람을 죽이며 문화제를 약탈했다. 그리고 억압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홍콩처럼 여러 지역을 조차하였다. 서구 열강의 군대가 가는 곳에 비즈니

더 이상 교회의 침자기를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득의 찬 말을 하였다. 그러나 1978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도 경제적 문호가 개방되자 중국 선교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약 7%에 해당하는 1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근대 중국선교에 동참한 서구인은 교회가 사라진 나라라고 생각되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오히려 100배로 성장해있는 것이다. 선교의 주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확인한 것이다.

맺음 말

중국은 땅의 크기나 인구 수 그리고 국력으로 보면 한나라라기보다 1개 대륙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더불어 G2로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세계를 향해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속에 굴기하고 있다. 이 전략은 과거 융성했던 유라시아의 육상 및 해상 무역로를 중국을 중심으로 재건하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세계인이 주시하고 있다. 모름지기 힘은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자본은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이 주변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컨대 중국이 내부적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하되 외부적으로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사나 경제 대국보다 복음의 대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쓰시기 원한다.

jrson007@hanmail.net

선교 편지

일본

"하물며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요나4:11)

이번 주 한주간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과 제비뽑기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체포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니스웨로 가게 하신 뒤에, 그들을 회개시켜 긍휼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봅니다. 그런 아버지를 불평하며 달려드는 요나를 향해 모든 선함을 보이신 뒤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셔서 요나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심으로 요나서를 마칩니다. 나는 나의 속 좁음과 나만을 생각하는 철용성에 갇힌 내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한인선교사대회: 지난 6월,

4년마다 열리는 선교사 대회에 20년 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2만7천 한인선교사들을 대표해서 참석한 1000여명과 열에 중심의 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대회였습니다.

저도 "한인디아스포라를 통한 일본선교"라는 주제로 선택강좌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영성일기 세미나, 선교사대회와 GMS 시니어 모임, 그리고 본 대회와 세계사모 선교사회의 모임까지 두주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임지에 돌아왔습니다.

영어캠프: 매년 7월 실시하는 영어캠프는 저희들의 사역의 트레이드마크 되었습니다. 10여년을 계속해 오는 바람에 꽤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젊은 청년들이 선생님으로 봉사해 주셨는데, 후쿠시마원전 멜트다운 이후 미국한인교회들이 일본을 기피하고 있어 믿음의 간구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사 주강사로 NHK영어방송 기상캐스터인 요나 단 오(미국 한인교회 목사님 아드님)가 발탁이 되었고, 부모가 되어 계신 동명대학부OB 카복을 통해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혼한 최고의 캠프가 되었다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뿌린 씨앗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가네모또사치요와 카무라에이미: 두 부인은 자녀들을 다 기른 50대 후반의 주부들입니다. 신기한 만남의 연결고리들을 통해 저희 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님이 예비해두신 자녀들일까!' 지난봄부터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감격에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 저희들에게 언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부들이 일본 땅으로 시집온 한국의 처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짜무라 간조가 "일본의 복음화는 조선반도를 통해야..."라는 예언적 명언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온 전화: 지난주 토요일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관이란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생겼나?' 긴장하며 들어보니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몇 일 동안 거처할 곳이 없으니 예배

당이라도 재워달라는 것입니다. 복권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즐거이 경찰서로 달려가서 야마다 부부와 2살배기 렌 군을 가족처럼 따듯이 맞이하고 뒷바라지 한 다음 날 주일 그들이 난생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6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새로 주어진 거처로 떠나 갈 때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애비의 심정으로 급한 식료품과 살림을 챙기고 자식의 살림을 싣고 가는 운전자처럼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음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쁘게 보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진 아이가: 15년 전 쯤 일입니다. 진원군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인 아빠에게 적을 둔 아이였습니다. 양아버지가 암으로 소천한 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있는 김선교의 동생 가정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훌쩍 성인인 그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긴 이야기 줄이면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교환학생으로 중국대학에 2년반 학업을 한 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편도 비행 기표 외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1년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영어와 일본어로 쓰인 것발을 날려 주님만 의지하여 자전기로 전국을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동경대학을 시작으로 각 대학의 젊은이들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우리고 가까이 와서 듣는다고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기아가 가득한 자전거를 구입해두고 어제 전국을 향해 떠나가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섭리와 인도는 신비하다...' 그가 이 땅에 맺을 것이라 믿는 것은, 그의 철저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4개 국어에 능한 국제적 감각도 사용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제목

1. 지난주 예배당건물 앞에 십자가와 간판을 크게 세웠습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 10년 가까이 지난 뒤여서 동네 사람들도 거북스럽게 쳐다보면서도 반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영어 캠프, 관계전도, 돌봄의 사역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심령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먼저 부름 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어서 굳센 교회로 세워져 가고 각자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4. 저희들의 사역과 선교지에서 살아가도록 생을 바친 사람들과 교회들이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으로 가까이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빌어주십시오.
5. 바쁜 중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신령한 교제를 하며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떠나 있는 자녀들(지연이와 지혁)이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인도를 받아 살아서 선교의 동참자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예배를 위해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집사님이 영구 귀국을 하였습니다. 경건하고 재능이 있는 반주자가 울수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없는 사랑과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동경에서 김신호, 문옥남(지연, 지혁) 드림 shinhokim@hotmail.com

<p>세계로편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xton, MA 01748</p>	<p>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Tel. (704)877-8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p>	<p>안다목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8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ias.com</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s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acr.com</p>	<p>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p.org</p>

인/터/뷰

이상훈 선교사 (니카라과)

예수님의 유언 '선교'... '소명'과 '준비'가 필수

“꼭 회갑 되는 날 니카라과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을 때 같이 서원을 했지요. 60세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자고... 그런데 11년 전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킨 셈이 됐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포르투갈어를 전공한 이상훈 선교사(니카라과)는 유학생으로 1980년 뉴욕에 도착했다. 공부보다 삶에 지치고 신분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자 캐나다로 다시 유학을 가게 된다. 모태신앙이었던 이 선교사는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기선교팀으로 아이티나 중남미 여러 나라를 다녔다.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는 문법이 같아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어 선교지에서 언어로 불편함은 없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토론토 한인회장(30대)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토론토 분교에서 이사장도 역임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목사가 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저 선교를 하려고 신학공부를 시작했는데, 목사안수까지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 안수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목사로서 사역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로 단기선교를 많이 다녔고, 니카라과도 3년 간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 사전 정보는 갖고 있었다. 아이티가 지진으로 순

위가 바뀌었지만 니카라과는 라틴 아메리카 중 가장 가난한 나라다.

단기선교 갔을 때 정이 붙었다고 할까? 니카라과는 한국의 60년대와 비슷하다. 하수도 냄새, 길거리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 한마디로 지저분하다. 그렇지만 옛날 어릴 때 생각나서 정겨웠다.

“현재 사역지인 디리암바 지역은 수도에서 한 시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북한산 높이이고 온도는 시원한 지역이죠. 커피통장이 있습니다. 커피 수확시기에는 잡(job)이 있지만 주민들은 실업자가 많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에 이 선교사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들에 ‘크리스천’이라는 이

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들도 그러하네,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기 때문에 기독교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컨트롤 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만 원칙적으로 통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



60세에 선교사로... 함께 서원한 아내 사별했어도 약속 지켜 초심 잃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인내로 섬겨야

들은 일반적으로 1년 혹은 5년 기한의 영주권을 갖고 있다. 케이스에 맞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니카라과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북한과는 소모사정권 때부터 수교국이었다. 현재 대한민국과는 경제적으로 가깝다. 한국 봉제업체가 많은데 한국 공단에 대

해 지역주민들은 호감을 갖고 있다. 케이팝도 한 몫 한다. 중고차가 많은데 현대 기아, 토요타가 주류이고 가전제품, 셀폰 등은 한국제품이 호감도가 크다.

2013년 6월 니카라과 도착 후 교회개척 1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택까지 지었다. 담임을 맡고 있는 생명수장로교회는 성인

50명, 아이들이 50명 정도 된다. 교인들은 물론 현지인들이다. 니카라과에서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고 안주하면 안된다.

“안주하면 내분이 생깁니다.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체내 선교팀, 성경공부, 기도회를 통해서 제자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현지인 선교사로 삼아 단기선교를 보냅니다. 아직 정글에는 미전도종족이 있습니다. 로컬 교회 지도자, 로컬 선교사를 육성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도 많이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40가정에 사랑의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한 패키지에 15-20달러가 소요됩니다. 또 교회 근처 초등학교에 문구류를 보급하고, 식수 공급을 위해 필터 정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이 없으니까 클리닉도 설립하고 동네 입구가 좁고 도로가 엉망인데, 입구 확장 공사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이 선교사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준비된 계획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이 선교사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준비된 계획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이 선교사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준비된 계획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이 선교사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준비된 계획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이 선교사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준비된 계획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는 선교사로 살고 있다. “선교/전도는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며 명령인데, 부모나 상관의 명령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킬 수 없죠. 부득불 해야 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하십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 이 선교사는 “첫째, 소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준비가 안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선교지를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에 가보니 언어가 선교사들에게 큰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페인어를 배울 기회가 많다고 강조하며 선교지에 와서 1, 2년 언어 때문에 고생하게 되면 조금씩 사역은 더 어렵게 된다고.

생명수장로교회는 커뮤니티 행사에 자주 초청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이름으로 교인들이 후원한다.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동역교회를 돕는다. 영어 클래스(미국인 교사) 운영, 현지인 목회자 초청 성경공부, 성인 청년 네일아트반, 특수농작물 재배방 강의 등 직업 창출과 연결시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사람들 본성은 착합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고 흠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말도 잘 듣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지도자들도 목사부터 찾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겸손과 인내의 본을 보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끝까지 참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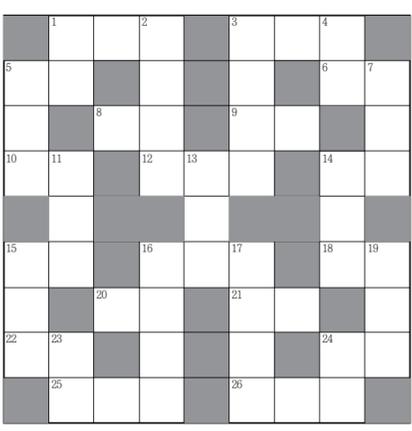
“사람들 본성은 착합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고 흠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말도 잘 듣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지도자들도 목사부터 찾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겸손과 인내의 본을 보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끝까지 참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겸손과 인내의 본을 보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끝까지 참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말 • Cross Word (145)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전도할 때 이 사람의 서원에서 매일 강론했다(행19:9).
3. 남자 아버지, 자녀를 가진 남자(창43:9).
5. 강이나 냇가 좁은 바다 목에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사3:28).
6.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시17:14).
8. 초상난 집(렘16:5).
9. 머리, 모자, 훈장, 선물 등의 장식으로 씌, 머리에 빨간 OO를 맨 소녀.
10. 요술, 사람의 눈을 어리게 하는 아릇한 술법(나3:4).
12. 아프리카 북부, 애굽의 서편에 있는 나라(단11:43).
14. 재산이 넉넉한 사람(잠23:4).
15. 끈끈한 실을 뽑아 그물을 치는 곤충(욘8:14).
16. 마세아의 아들, 바룩의 부친(렘32:12).
18. 하나님은 우리들의 OO를 보신다(창8:21).
20. 남의 자유를 힘으로 억누름(사14:6).
21.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함(행24:14).
22. 제사장의 종인데, 겹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휘젓는 칼에 귀가 잘렸다(요18:10).
24.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척 큼. 이것으로 핸드백을 만들면 최고(레11:30).
25. 동물의 머리.

26. 예수의 족보 중 한 사람이다(눅3:26).

<세로 푸는 열쇠>

1. 팔고루, 날리(속6:7).
2. 한데 쌓아둔 곡식더미(룻3:7).
3. 헬라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행27:27).
4. 현재에 이르기까지(창24:16).
5. 욥의 친구 소발의 고향이다(욥2:11).
7. 살아남은 사람(사4:3).
11. 수탉의 주된을 가리킨다(아6:13).
13. 베냐민 족속(삼하20:1).
14. 알지 못하는 사이(히13:2).
15.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꾸며 하는 말(잠14:5).
16.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처음 발자취를 놓은 곳이다(행16:11).
17. 예수님의 형제가 쓴 듯 하다. 그리스도인의 행위 즉 도덕의 실천을 강조한 책.
19. 심하게는...(눅21:16).
23. 몹시 기다림(행27:29).
24. 성질이 나쁜 사람(시112:10).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9)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3)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한인교회의 기독교교육에서 많이 신경 써서 논의해오지 못했던,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해서 한인 기독교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특히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이 새로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이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이야기들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 "한인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는 다르게 풀어서 표현하면, 한인기독교교육을 위하여 행해지는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특히 비평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 제목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들은 "한인기독교교육(Korean

Ammerican Christian Education), "비평적 사회학(Critical Sociology)," 그리고 영어 표현에 있는 "Involvement(관여)"라는 개념들이라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개념인 "한인기독교교육"이라는 표현과 두 번째 개념인 "비평적 사회학(Critical Sociology)"이라는 표현이 갖는 함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개념인 "Involvement(관여)"라는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이 새로운 이야기가 한인기독교교육(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을 위한 그리고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한 비평적 사회학적 해석(Critical Sociological Interpretation)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해 일련의 "관여(Involve)"를 하는 일과 관련된 시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여한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 그냥 의미 없이 방관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상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다 마찬가지로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어떠한 것에 대해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상관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또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도 여기서 말하는 "관여"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설명은 "누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 그렇게 상관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 관여의 주체(누가)와 객체(무엇에 대해)에 있어서 보다 복잡한 의미가 있으며, 그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관여"라는 개념의 전체적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또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에서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을 주체는 "우리 사역자들과 한인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크게 보아 "한인기독교교육"입니다. 그런데

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문화적 이해가 풍부하고 차별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사역에 이해 하자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만약 실제로 다문화적 이해가 부족하고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다면 어째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분석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 향후 어떻게 하면 그 유스 그룹이 보다 수용적이며 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한인 기독교 교육의 실천과 사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듯 보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관하고 일하며, 이러한 것이 그 주체와 객체와 관련하여 "관여"라는 개념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에서 방치하거나 방관

관여: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하는 것 (실천과 사상, 사회의 불의 불건전한 깨어진 부분들에 대해)

이러한 관여가 "우리 사역자들(교육자들이)"이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해 행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늘 한인 기독교교육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사역자들은 직접 한인기독교교육을 실행하기도 하고, 후방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한 신학적/철학적 근거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면서 늘 상관계했으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그 "관여"가 기존의 우리 사역자들의 일과 다른 부분은 바로 그 "객체"에 있습니다.

즉 그 객체는 단순히 한인기독교교육의 실천 및 실행 전반이 아니라, 그 실천과 실행과 근간이 되는 사상과 풍조 등에서 나타나는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여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하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교회의 유스 그룹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흑인 친구들을 인도해왔을 때, 그 흑인 친구들을 적절하지 못하게 대하고,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짐시다. 이때 우리 사역자들은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여 그 유스 그룹에서 다문화적 이해가 부족하고, 흑인

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하는 주체는 "우리 한인기독교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는 "사회"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한인기독교교육이 이 사회를 향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인가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인기독교교육이 이러한 것들 것 방치하고 방관하고 침묵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따듯하고 의로운 사회를 일구어 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건전한 깨어진 부분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일, 그리고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일을 한인기독교교육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와 객체와 관련하여 "관여"라는 개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사역자들이 한인기독교교육의 실천과 사상에 있어서 불의하고 불건전한 깨어진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인기독교교육이 사회의 불의하고 불건전한 깨어진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평 사회학적으로 상관하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제목에서 "관여"라는 개념을 통해 시사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싸고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왕을 믿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진실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역olum을 변명하거나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신이 책임을 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싸고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왕을 믿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진실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역olum을 변명하거나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신이 책임을 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준근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삼하3:31-35)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아브넬이 대표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까지도 다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싸고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죽속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더욱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 이때 다윗은 한마디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변명하거나 요압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서 자신이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삼하3:36-39)
다윗이 요압과 싸고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왕을 믿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진실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역olum을 변명하거나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신이 책임을 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 기뻐하므로(삼하3:36-39)
39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을 당장 처치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동족들이 큰 싸움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의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리더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하나님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영광과 안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수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삼하4:1)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집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비상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 다윗은 지금 사울왕가와 한번도 직접 싸움을 벌이지 않았면서도 사울왕가는 다 몰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다윗은 가

함을 듣고(삼하4:1)
만하 있었는에도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서로 싸우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무리의 사람이 나오습니.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이스보셋의 군대장군인 바나나와 레갑 그리고 다윗왕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고 손매이 풀린 이스보셋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 손매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삼하4:1-4)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손매이 풀렸다"는 말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졌다. 완전히 낙심해 손을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보셋이 특별한 잘못한 것에 대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장군 한사람 죽었다고 힘을 잃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

놀라니라(삼하4:1-4)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 장군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모든 소망을 잃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습니.

금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삼하4:5-8)
이스보셋의 군대장군인 바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왕을 죽이고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목을 베어왔으니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이후로 곧바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나와 레갑은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넬이 죽고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 것을 알았습니. 이제 이스보셋 왕은 별 불일 없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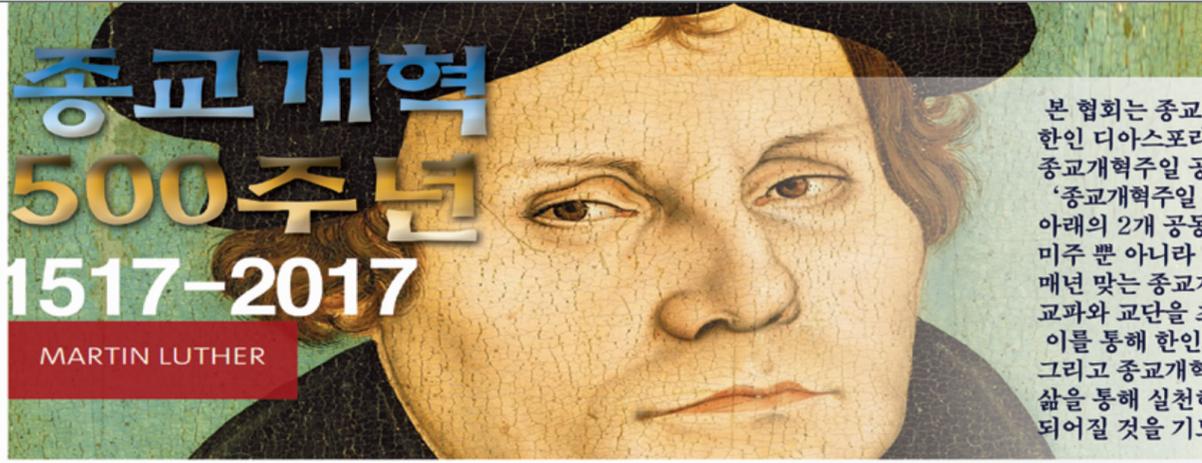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삼하4:5-8)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이기심에서 온 것입니다. 기회를 타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생명을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토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다윗은 악인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평상시에 욕심을 내서 왕이 돼 보고자 했다면 바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원수를 갚았다는 소식에 큰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악행을 저지를 사람을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그들의 수족을 베어 매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의 가족들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

상사하였다(삼하4:9-12)
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던 다윗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침은이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2-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0-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p>	<p>승중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갈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6:00) Tel. (0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 291(잠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0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죽전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후 2: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8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본 협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신앙고백과 개혁의지를 담은 종교개혁주일 공동기도문과 교독문을 발표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예문작성위원회'를 통해 작성하고 검증을 거친 아래의 2개 공동 기도문과 3개의 공동 교독문 예문을 미주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매년 맞는 종교개혁주일(Reformation Sunday)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사용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한인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삶을 통해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해외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주일 공동 기도문 · 교독문

공동 기도문 1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개혁의 여러 일꾼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클리프, 후스 같은 선각자들, 루터, 칼뱅, 츠빙글리 같은 개혁의 주도자들을 주셨고, 웨슬리, 나스 같은 계승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 위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로 영접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인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신감추심을 입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통쾌한 승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자기라는 모습으로 변장한 내 속에 있는 악령들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목숨 바쳐 세우신 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없다며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무신론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는 교만한 세력들, 그릇된 신을 섬기는 자들, 향락주의에 도취된 자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창과 방패로 사용하시옵소서. 130여 년 전 우리의 모국인 한반도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구마을 선교의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해외한인교회들이 행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형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해외한인교회들이 그 일에 선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2

교회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토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주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표어를 기억합니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그 전후에 여러 개혁자들과 계승자들을 보내셔서 이 다섯 가지 표어를 힘차게 외치며 그들로 하여금 갱신할 수 있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세계 곳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빌 2:8)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따라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대신 세속과 시류에 영합하는 성도가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십자가의 길 대신 넓고 평탄한 길을 찾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4)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먼저 거둬내고 개혁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으로 가득하고 반복적인 가치로 깊이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용서와 평화의 종으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약 2:22)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결단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관념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으로 삼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증거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교회가 인간의 영광을 매매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아가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지혜를 선전하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현상이 되게 하소서. 부단한 개혁을 가르친 종교개혁자들의 깨우침이 단순한 구호로 머물지 않고 교회의 현상이 모든 제도와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민교회와 사회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그 후예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가 되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옳은 것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개혁을 위해 고난 받으며 나아갔던 신앙의 선전들의 뒤를 따라 부단한 개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

< Based on 'Five Solas'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5-16)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교독문 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1-2)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1:23)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21:5)

교독문 3

<로마서 3:19-3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 예문 작성위원회
위원장 : 홍영환 목사(중앙루터교회, 루터교)
부위원장 : 이정근 목사(유니온 교회 원로, 성결교)
총무 : 이상명 박사(미주 장신대 총장, 장로교)
위원 : 이창민 목사(LA연합갈리교회, UMC)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순복음)
- 감수위원: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침례교)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 회원사 명단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